[UCI]I804:24011-200000233323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김 수 현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material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Interior Architecture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김 수 현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조형디자인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김 수 현

김수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 정 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갑 근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문제 ·····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비물질성의 이론적 고찰 ····· 5
제1절 비물질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 5
1. 비물질성의 개념 ····· 5
2. 비물질성의 디자인 구성요소 ····· 10
제2절 비물질적 표현 특성과 적용 ····· 18
1. 비물질적 표현특성 ····· 18
2. 비물질성 적용 ····· 20
3. 비물질화 경향 ····· 22
제3절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표현 ····· 32
1. 현대실내건축의 패러다임 및 경향 ····· 32
2. 현대실내건축의 재료표현양상 ····· 34
3.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적 특성 ····· 39

제3장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특성분석 ····· 41
제1절 분석방법 ····· 41
1. 분석의 틀 ····· 41
2. 분석요인 ····· 42
3. 분석방법 ····· 42
제2절 비물질적 특성별 분석 ····· 43
1. 재료적 표현 ····· 43

2. 경계적 표현 ····· 45
3. 매체적 표현 ····· 46
제3절 비물질표현의 영역유용성 분석 ····· 48
1. 비물질성의 확장성 ····· 48
2. 비물질성의 복합성 ····· 51
3. 비물질성의 상호작용성 ····· 53

제4장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특성 및 효과 ····· 55
제1절 분석결과 특성 및 시사점 ····· 55
제2절 비물질적 표현특성별 효과 ····· 60

제5장 결론 ····· 64

참고문헌 ····· 67

<표 차 례>

표 1 물질, 비물질간 개념 비교 ····· 9
표 2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 경향 ····· 23
표 3 재료와 조형간 복합요소 ····· 36
표 4 건축디자인의 비물질성 표현 ····· 42
표 5 현대건축 : 재료적 측면 ····· 44
표 6 현대건축 : 경계적 측면 ····· 45
표 7 현대건축 : 매체적 측면 ····· 47
표 8 상업공간에 표현된 비물질성 표현의 확장성 ····· 49
표 9 재료의 확장성 ····· 50
표 10 재료의 복합성 ····· 52
표 11 재료의 상호작용성 ····· 54
표 12 비물질적 표현 특성 ····· 56
표 13 재료적 표현 특성별 분석 ····· 57
표 14 경계적 표현 특성별 분석 ····· 58
표 15 매체적 표현 특성별 분석 ····· 59
표 16 확장성 표현 특성에 따른 효과 ····· 61
표 17 복합성 표현특성에 따른 효과 ····· 62
표 18 상호작용 표현특성에 따른 효과 ····· 63

<그림차례>

그림 1 동경 롯본기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 13
그림 2 동경긴자 로얄파크 시오도메 타워 ····· 13
그림 3 일본 Fujiya 본사 건물 ····· 14
그림 4 동경 롯본기 뷰티플라자 ····· 14
그림 5 키네틱 아트 ····· 24
그림 6 오토 피네(1959). ····· 25
그림 7 반중력적 형태 ····· 25
그림 8 노만 포스터의 비물질화와 반중력화 비교 ····· 26
그림 9 판스워드 주택(Farnsworth House) ····· 27
그림 10 포스트 모더니즘 ····· 29
그림 11 김영섭과 건축문화설계소의 J주택 ····· 30
그림 12 마르코스 노박의 전송건축 ····· 31
그림 13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유형의 도식 박스재정렬/화살표와 특성과 관계 이해 어려움 ····· 33
그림 14 분석의 틀 ····· 41
그림 15 스톤하우스 ····· 44

ABSTRACT

A Study on Immaterial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Interior Architecture

Kim, Soo-Hyun
Advisor :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utility and suggestion for a practical application by understanding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 of immateriality on the basis of a general concept of immateriality and development of immaterialization in the space for store interior, and by analyzing a method and feature for introducing this on the spot.

It was progressed: First, it made inquiries into the concept of immateriality that is newly emerging from architecture and the current of design through the flux of the tim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Second, it made an application of two methods such as literature inquiry that sort out the patterns an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mmateriality in design, and case analysis that examine into real characteristics of leaning toward immaterial expression through analysis approached domestic case on the basis of this.

The following are the immateri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expressed from the angle of contemporary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First, it showed that new environment is changing the intentional value of the present age from fixing to un-fixing, from material to de-material, from heaviness to lightness and from clearness to obscurity, due to deconstruction by a technology that free human from a boundary limited physically, or restraint of time and space.

Second, it showed th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pace by transparency solve a sense of material by doing a role of dynamic screen as an expressional factor to deliver information interactively, which it imply the possibility of media material and not general construction material.

Third, it showed that the pattern of dematerialized expression is widely applied as deconstructive, metaphorical and media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al factors are widely used for lightness, richness, mixture, visual fabrication, and screen and text image. In particular, the deconstructive expression is widely applied by the delivery of visual perceptive experience based on real lightness obtained by the use of reflective surface like glass or metal material, and relative richness through the opening and closing of mass.

Fourth, it showed that the metaphorical expression is widely applied by the use of different material, which it place a property of matter in a different light through tension-showing mixture and reiteration of material, and light and illumination. In other words, this expression can make an impression of refinement and luxury intended to a high degree as well as temperance and restoration as a result of endless study on methods that not create new material itself, but combine well-known material with new form.

It is not in reason to prescribe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and further factors above as each individual property, but they can be also duplicated each other. Although the immateriality within space cannot be independently in existence as only a characteristic of mixed expression, it has more

dominant property in the space.

The modern design is developed by many styles in the whole art field of various genres as well as interior design. The immateriality is not on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ncept of modern space design in this pluralism era, but als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design paradigm.

In the resul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lated study diversely, given that human can seek another possibility as the aspect of new image and shape in the indoor space, and spatial concept, as the immateriality have close relations with factors such as the outer skin, material, media, light and movemen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현대건축 및 디자인은 여러 가지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향이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료의 표현이나 공간의 기능, 그곳에 수용된 프로그램을 재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패러다임은 환원적인 물질의 개념이 아닌 비물질성으로 해석한다.[1)]

현대의 공간은 물질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명한 표피를 사용하고 투명성을 통하여 건물의 내부공간과 인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는 투명도의 조작으로 공간영역의 기능과 그곳에 수용된 프로그램을 외부에 드러내어 삶의 리얼리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2)] 가벼운 재료로서의 즉 '구축적 특성'이 감소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물질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비물질성은 공간 내 외부를 구분하는 재료와 마감의 물질감 대신 투명성을 등장시켜 내부와 외부의 개념을 없애고, 공간을 상호대입 시키며 애매한 상태로 나눈다. 이는 '경계의 모호함'이라는 공간개념상의 특징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비물질'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에 대응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물질 대 비물질'에 대한 담론은 매체가 지니는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탈피, 즉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특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건축은 물질적 구상체로 존재하기에, 물리학, 수학, 철학에서와 같은 실제적 설명과는 다르게 나타내어지고 있다. 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는 이와 같이 재료의 물성, 질감 또는 표면의 의미에 의한 물체사이의 긴장과 이를 통한 표면과 내외부의 상호관계성을 중요시하며, 재료의 이미지에 대한 비물질화는 인지의 조작을 통해 물질을 제어하는 현대 기술에 의해 알려진 가능성의 탐구를 의미하는 것이다.[3)]

---

1) 김성남,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미디어센터 계획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p.5.
2) 서용민, "건축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표현특성 및 발현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p.111.
3)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h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건축의 역사는 물질의 새로운 시도와 함께 하며 물질의 발견과 물질을 다루는 방법, 물질자체의 존재의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창조를 제안하는 것이다.[4] 근대 이후에 정립된 공간의 물질성은 물질의 존재와 결합, 형태의 창조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반형태주의적 개념들은 재료의 물질성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대의 건축공간은 재료와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감추고 지우려 한다는 의미에서 비물질성을 가진다.

이 같은 특성을 갖는 공간에서의 비물질성은 해체주의적인 반형태성, 투명한 재료의 표현을 통한 경계성 및 중량감의 제거, 구조와 공간의 분해를 통한 구축성의 소멸, 미디어적 특성을 이용한 건축표피의 물성상실 등 모든 공간의 재료와 형태, 이미지 등에서 물질감을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5] 또한 물질성과 비물질성이 함께 공존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물질적 이미지와 가상적 이미지가 혼재하여 결합하고 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비물질적 특성을 디자인에 접목시켜 상업공간에 반영시킴으로서 재료사용과 표현소재의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물질의 일반적인 개념과 (실내매장 인테리어에서의) 실내공간에서 비물질화의 전개를 토대로 하여 비물질성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며, 현장도입에 대한 방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유용성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제2절 연구의 문제

해체주의 공간에서는 비정형적 추상디자인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완전함에 대한 침해행위'를 주장하는데 기본 물리학의 개념을 부정하고 중력에 반하는 디자인, 입면의

May (2000).

4)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h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pp.42-43.

5) 박혜원, 김정재,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no.3 (2002), p.92.

단절로 물질성을 감소시킨다. 우연성을 강조하고 비논리적 병치와 꼴라쥬 수법으로 충격효과를 표현한다. 이러한 비정형적 디자인 개념은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난 비물질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해석을 범주로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밝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성 표현 요소와 활용에 대한 사례 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현대 실내건축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성 표현 요소에 대한 재료, 경계, 매체적 방법과 표현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실내(공간)에서의 비물질성 표현 방법의 적용을 위한 확장성, 복합성, 상호작용성 표현 특성을 반영한 이상적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비물질성을 가진 현대 실내 건축 디자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비물질적인 표현경향은 공간 혹은 상업공간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아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비물질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정보화, 다원화 현상에 따라 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며, 비물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현대 공간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트랜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디자인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업공간의 실내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물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건축에서 실내디자인을 대상으로 비물질 재료의 표현과 활용방법에 대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분석 후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연구의 진행은 첫째, 공간에서의 비물질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 공간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적 특성과 유형을 분류하며, 셋째 국내 상업공간 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상업공간의 실내에서 표현되는 비물질적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국내 상업공간 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상업공간의 실내에서 표현되는 비물질적 디자인 특성을 자료사진과 더불어 그 특징을 분석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물질화의 개념과 디자인에서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흐름을 알아보고, 둘째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대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성 유형과 표현특성을 분류해 보는 문헌고찰방법과 이를 토대로 국내사례에 접근되어진 분석을 통해 비물질적 표현 경향의 실질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사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비물질화는 재료의 물성, 질감 또는 표면의 의미에 의한 물체사이의 긴장과 이를 통한 표면과 내외부의 상호관계성을 통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 디자인에서 나타나게 되는 비물질적 표현 사례를 통해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접목가능성과 방법 등을 모색 후 그 대안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사례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제2장 비물질성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비물질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비물질성의 개념

1) 물질의 개념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실체”로, 자연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써 질량을 갖는다. 이는 물리적 의미와 의식에 대하여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감각을 통해서 의식에 반영되는 사물과 현상의 총체인 객관적 실재를 가리키는 존재론적 개념과 인식론적 개념의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6)]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물질의 개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에 관한 개념으로 물질을 존재의 가능성으로 간주하고 물질과 형식으로 이원적으로 분리한다. 즉 베이컨은 물질은 독립적 실재를 인정받게 되고 불변하는 구체적인 속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으며, 데카르트는 물질이 유일한 실체이며 존재 및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보았다. 그러므로 물질과 재료의 의미는 자연과학적, 존재론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물성은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어지는 물질의 내재된 특성으로서 철학적으로 물질의 인식론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칸트는 물질은 가능적 경험의 대상이므로, 현상으로만 존재하며 물질 자체는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감각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모순되며, 의식에서 독립하여 따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만 보았다.[7)] 따라서 물질에 존재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물성으로 이는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물질의 느낌이며 물질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건축가에 의해 인식되어 시지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물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체의 형식과 물질로서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물질은 건축디

---

6) 김낙중, “루이스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pp.10-12.
7) 김낙중, 상게서, pp.10-14.

자인 관점에서 응용되어질 수 있는 일체를 물질의 일반적 개념으로 보고 정의한다.

한편 디자인에서의 물질의 개념을 보면, 최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유물론의 대두를 통하여 물질개념이 강화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고, 물질은 인간의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재로서 속성을 보유한다고 보는 실재론적 관점에 의해 자연의 일부로서의 재료는 그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디자인 관점에서의 물질은 고대 건축과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등에 그 원형이 나타나는 물질 개념으로서 재료의 본질 및 가능성을 그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부토대로써 작용하는 것이었지 전체는 아니었다. 고대로부터 디자인은 '요소(element)를 구성(composition)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로써 그 특질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디자인에서의 재료는 그 자체의 물성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8)]

인간 생활에 사용되어지면서 '물질'이 디자인에 개입될 때, 그것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여기에 디자이너의 인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그 고유한 속성인 물성으로 인식되는 것이다.[9)] 이것은 디자이너의 의식이 인테리어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재료는 그 고유한 속성인 물성과 함께 건축디자인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근대 이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수많은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론가들이 디자인 개념과 재료와의 사이에 물성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디자이너들은 이런 재료와 인식 또는 개념의 관계와 흐름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서, 형상이란 사용되는 물질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상이 높아진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개념과 재료와 물성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10)] 기술의 발달과 수많은 새로운 재료들의 등장으로 물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모더니

---

8) 김낙중, 상게서.

9) 김낙중, "루이스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p.13.

10)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서울 : 시공사, 1999), pp.62-68.

스트, 특히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이르러 형상 또는 양식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던 물질의 문제가 그 위상을 역전시키게 된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것이 즉, 물질이 인식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2) 비물질의 개념

건축디자인에서 비물질화 경향은 크게 아이디어로서의 예술과 행위로서의 예술이라는 두 가지의 원천적인 태도에서 근본이 비롯된다. 첫 번째 경우는 감각이 개념으로 치환된 것으로서 물질 자체가 거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물질이 에너지와 시간-움직임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은 대체로 서로 엇갈려서 공존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11]

Lucy Lippard는 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비물질화의 과정을 유일무이성과 항구성 또는 장식적인 것에서의 예술적 태도에서 비롯된 물질적 측면에 대한 배제라는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이것들은 주로 '기이한 추상(Eccentric Abstraction)', '반형식(Anti-form)', '과정미술(Process Art)', '반환영주의(Anti-illusionism)'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적 미술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품들의 외형적 방식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기록을 위한 종이조각이나 사진들을 본질적으로 오브제나 물질인 것으로서 이때, 비물질화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면 Lippard가 고백하듯 '비물질화'란 용어는 다소 부정확한 말이 된다.

따라서 '비물질화'라는 의미는 어떤 변화의 추이나 경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또한 그러한 미술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일컬었던 명칭들도 양식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경향성으로 파악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형식주의 이후의 모든 예술적 카테고리 내에서의 변화들이란 일정한 형식적 규범을 갖는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향성으로서만 남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으로서의 비물질화는 미술 오브제가 더 이상 물리적인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특성과 함께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빚어지는 상황 내에서의 체험의 본성을 일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체험의 본성이란 곧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비물

11) 허구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비물질화 경향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질화 되는 유형들은 보는 과정을 위한 일종의 '물리적 계기'로서만 작용하게 되며, 시간이 개입되는 과정으로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12)]

비물질은 물질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그것이 바로 비물질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세계의 형태가 있고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에 대응되는 말이다. 비물질은 물질로부터 탈피하여 그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이미 과거로부터의 이상세계를 물질적이지 않은 세계로 인식하면서 다각적으로 시도되어 온 인간의 본능이다. 이러한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이론적인 밑바탕은 양자역학에 근거하고 있다.[13)] 건축적 구축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미가 아닌 '부정, 거짓, 아님'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름, 없음, 이미지'라는 개념의 반영으로서 비물질이라는 용어로 해석되는데 이상의 물질, 비물질간 개념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표 1)

---

12) 허구영, 상게서. 미술의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는 197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속에서 이미 충분히 발전되고, 실험되었던 이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들이 역사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물질적 미술들 역시 미술관으로 포섭되어 하나의 미술품, 물질로서 고착되었다. 이를테면, 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은 노트가 작품으로 전시되는 식이었다. 관객의 개입이라는 양상 역시 이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13) 원자, 분자, 빛 등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법칙 등의 고전 물리학에 대체되는 새로운 운동법칙이 발견되어 하나의 역학체계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표 1 물질, 비물질간 개념 비교

분류	내용
물질	재료의 물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물질적 표현은 사실상 물성에 의한 즉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뚜렷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지각적 차원에서 인식 가능 및 불가능으로서 구분이 된다. 이것은 빛의 투과 반사 등에 따라 스스로는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어 비물질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물질적 표현은 비물질적 표현과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비물질	비물질성(Immateriality)은 물질성을 상실케 하는 의미로서, 물질에 의한 실재성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의 초월은 육체로부터 정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했으며, 육체의 한계로 인해 다가가지 못하는 곳, 즉 이상세계를 물질적이지 않은 세계로 인식하면서 이미 고대로부터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온 인간의 본능이다. 고전물리학에 대체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 비물질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데 기존의 물질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실재의 등장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비물질성은 이미지, 코드, 기호,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디자인에서의 비물질	비물질적 표현은 즉물성을 고려한 질감, 객관적인 재료의 본질적 특성이 순수하게 표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디자인에서의 물질은 형상속에 내재된 시지각적 표현에서의 인지 가능한 물질로서의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 : 앞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네트워킹 된 인간과 개체들에 있어 정신과 물질의 분리는 더 가속화되면서 물리적 환경의 물질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비물질도 물질에 상반된 개념으로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2. 비물질성의 디자인 구성요소

기존 재료들의 표현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재료들의 물성 변형, 재료간의 접합방식의 변형, 감축과 구조 형식을 왜곡하는 등의 탈구축적인 현상이 현대건축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다.[14] 특히 재료의 경우 각 재료들의 고유물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바뀌거나 시지각적 변형을 주어 재료의 본성을 감춤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재료 고유의 물성과 그 물성을 교란시키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축조하여 비물질적 표현을 부과시키기도 한다. 또한 각 재료들 간의 접합에 있어서 비물질적 표현은, 유리로 마감된 것을 보면 일상적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유리가 삽입되어 시공된 것을 보고는 비물질적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15] 유리에 테두리를 아주 얇게 바꾸거나,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접합을 했다면 이것을 비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구조표현방식을 탈피하거나 시간이 개입되면서 변화해 가는 건물은 단지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이 발생하므로 새롭거나 변형된 구조형식은 시간이 개입되면서 비물질적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16]

요소면과 요소면, 요소면과 전체외피, 다중체계들이 서로 관계맺는 방식을 통해 이들 활성외피 구성방식은 ① 발현 ② 변화, 왜곡 ③ 전도 ④ 융합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된다. 이를 세분화시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현(revelation)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또는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뜻으로 첨가(addition) 및 삽입(insertion)으로 인하여 활성외피에 새로운

---

14) 김정재 외 1명,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no.3 (2002). 이것은 1986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열렸던 비물질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료타르가 현대 문화를 비물질의 문화로 규정한 바 있듯이 근대의 지표적인 경향은 현대에 들어와 혼합적인 재료와 비물질성의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건축 전반에 걸쳐 비물질성이 거론 되어오고 있고, 근대 이후 정신과 물체의 고민으로부터 그 이론적 정립이 숨가쁘게 만들어져 오고 있으며, 이것은 물질과 비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15) 철학에서의 물질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연과학에서의 물질개념보다 광범위하며, 철학에 나타난 물질의 개념은 고대철학에서 유물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16) 김성남,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미디어센터 계획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p.5.

물성이 표출되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물성을 강화시키는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현의 방식 또한 다양하며 그 중 중첩(superimposition)과 병치(juxtaposition)를 통하여 이질적인 요소나 질서를 동일한 면 위에 겹쳐서 표현함으로써 새로이 발현된 관계들로써 대상의 숨은 특징을 표출하여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요소를 재배치하거나 유사한 상태로 혹은 그것의 차이를 강조하게 한다.[17]

둘째, 변화(variation)・왜곡(distortion)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뜻하며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뜻한다. 이는 새로운 관계맺기 즉 중첩과 병치를 통하여 이질적인 요소나 질서를 동일한 면 위에 겹쳐서 표현함으로써 새로이 발현된 관계들로써 대상의 숨은 특징을 표출하여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요소를 재배치하거나 유사한 상태로 혹은 그것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여 발현되어 나타난 현상 혹은 성질이 바꾸어짐을 뜻한다.[18]

셋째, 전도(conduction)는 '전하여 인도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구축재가 변화, 왜곡되어 짐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지각상을 가질 때 나타나는 구성방식이다.

넷째, 융합(fusion)은 이질적 개체나 질서가 하나로 합성되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구축적, 지각적 관계 맺기를 말한다. 이질요소들은 평면적・입체적 밀착, 합성, 중첩되어 제3의 면을 생성한다.[19] 즉 다른 재료임에도 같은 효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20]

이상에서의 특징과 같이 디자인 관점에서의 비물질적 구성요소는 각기 구축적 관계를 갖고 외피와 구조체를 실재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지각적 관계는 건축실체와 관찰자의 지각상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체계, 다른 형태, 다른 재료가 지각상에서 통합되면 이질적 실체들은 하나의 지각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에서 통일된 구성요소로서의 비물질성도 디자인에서의 접목이 가능해지는데 이들 구성요소를 디자인관점에서의 비물질성 재료를 중심으로 세분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17) 유진상, "헤르조그 & 드 뫼롱 건축의 외피구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pp.162-163.

18) 유진상, 상게서.

19) 융합은 조형적으로 작은 색점이나 형태, 면이 집합체가 되도록 혼색 또는 혼합하여 다른 색이나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점표화법이나 모자이크 벽화, 컬러텔레비전의 혼색 등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직물 산업에서 다른 색의 종, 횡실로 짠 직물의 색이나 질감 또는 융합기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게서, p.164.

20) 유진상, 상게서, p. 164.

1) 형태(Shape)

형태는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형태는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변모를 가리킨다. 형은 어떤 형체의 윤곽이라 할 수 있다.

시각예술에서의 돌의 무게, 나무의 결, 페인트의 점질성 등 매체의 고유한 질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형태는 외부적인 힘인 재료로서 구체화되며, 재료로 구체화된 형태는 실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갖게 된다. 또한, 형태는 볼륨의 그림자나 평면의 윤곽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상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특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불규칙한 형태는 일관성 없게 서로 관련되어 각 부분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대칭적이고 규칙적 형태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높이, 넓이, 길이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볼륨의 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볼륨에 여러 요소들을 덧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모든 형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 대상의 방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방향은 공간 속에서의 한 형태가 가지는 위상의 이미지가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둘러싼 지각의 구조, 우리의 신체, 뇌수 이미지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단점에서 형태 또한 다양한 물질 또는 비물질적 요소 중의 하나로 응용되어진다.

2) 색채(Color)

색채는 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빛을 가리키는 색이 눈을 통하여 감각되어진 것을 말한다. 색채는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채색이란 백색, 회색, 검정색 계통의 색을 말한다. 무채색의 온도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성색이다. 유채색이란 무채색 이외의 모든 색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색들은 모두 3원색이 판이하게 구별되는 차이를 말하는 색상, 색의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말하는 명도, 색의 선명한 정도를 말하는 채도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색상과 톤, 배색에 따라 강렬하거나 온화하거나 화려한 것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지니며 색을 보고 느끼는 정도, 느낌, 반응 등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색상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미지와 개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색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기타 디자인의 요소들이 이 색채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심리적 혹은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색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 투과, 굴절, 흡수될 때 안구의 망막과 여기에 따른 시신경이 자극됨으로서 감각되어 인지할 수 있게 된다.[21] 색채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는 각기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별로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색채조화는 인간의 기호에 관한 문제이고 정서적 반응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내에 있어서 색채 조화란 유동적인 기물, 가구, 장식품 또는 명도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므로 이의 완전한 응용이란 실로 기대하기 어렵다.

재료에 따른 색채 이미지는 환경의 여러 가지 조직화 과정에서 생기는 무형의 형태로서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장 클립 랑크로(Jean P. Lenchro)에 의해 바닥, 벽, 천장에 사용되는 실내재료의 재질을 관찰하고 독특한 색채 경향을 색채 이미지화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재는 warm, 인공재는 cool로 받아들여진다. 대개 흰색에서 회색, 검정에 이르는 무채색 이미지 라인이 자연재와 인공재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다.(그림1)

그림 1 동경 롯본기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② 자연재 중 대표적인 목질재는 warm에 위치하여 soft에서 hard까지 주로 색채에 의해 변화한다. 흰색 목조는 soft, 티크나 오크가 중간, 로즈우드 계열은 warm hard이며, 나왕재나 호두나무 계열은 약간 차갑고 그레이쉬(grayish)하다.(그림 2)

그림 2 동경긴자 로얄파크 시오도메 타워

21)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서울 : 미진사, 1995), pp.183-184.

③ 유리재는 cool한 이미지이다. 깨끗한 이미지이지만 날카로운, 차가운, 매끈매끈한 긴장감이 있는 소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에 비해 합성수지 아크릴은 깔끔하며, 밝고, 매끈매끈한 서양풍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유리보다도 약간 warm soft하며 인공적이며 경쾌하고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그림 3)

그림 3 일본 Fujiya 본사 건물

④ 벽돌은 풍부하며 질이 좋은 고급스러움과 보수적이며, 클래식한 전통적인 느낌과 실용적인 안정감 등의 이미지가 특징이다. 벽돌색은 클래식한 이미지이지만 벽돌 타일로 만들어진 색으로 아이보리색에서 브라운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만들어진다. 따라서 네츄럴, 엘리건트, 댄디, 클래식에 걸쳐 있다.[22](그림 4)

그림 4 동경 롯본기 뷰티플라자

이외에도 색채는 부호 시스템(code number)의 하나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가진다. 색채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시각 메시지에 생기를 주고 눈에 띄게 하여 더욱 인식하기 쉬워지는 장점을 갖듯이 재료는 각 소재에 따라 다양한 물성적 특징을 갖는다.

3) 질감(Texture)

질감이란 물체가 촉감의 경험으로 얻어진 느낌을 시각을 통하여 그 물체의 재질에서 오는 표면의 시각적인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이 갖고 있는 표면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그 '질'이란 보거나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

22) Jean P. Lenchro, 『랑크로의 색채 디자인』, 김기환 역 (서울 : 도서출판 국제, 1994), p.22.

는 것이다. 예컨대 화강석의 거칠음, 털 발이 긴 카펫의 부드럽고 푹신하며 따사로움이라든가 판유리가 주는 차고 매끄러운 느낌도 시각이나 촉각을 통하지 않고도 연상할 수 있는 질감 효과가 그것이다.[23]

기본적인 질감의 종류는 거칠기와 광택에 따라 '거칠고 광택이 없는 것', '거칠고 광택이 있는 것', '매끈하고 광택이 없는 것', '매끈하고 광택이 있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질감은 음영효과라고 하는 시각적 사실과 촉각적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한 물체의 표면은 재료, 조직의 정밀도, 질량감, 건온도, 습도, 빛의 반사도 등에 따라 시각적·촉각적 감각효과가 달라진다.

재료의 표면과 내용은 크게는 건축디자인을 이루는 공간에서부터, 작게는 재료 자체의 문양과 각 재료들의 배열 방식들, 재료가 가지는 색채 혹은 줄눈상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재료에 대해 인간의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는 성질과 더불어 재료자체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학습에 따른 연상 작용을 통한 총체적 평가치를 가진다.

재료의 질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① 재료표면의 물리적 표면성상 ② 재료와 관찰자와의 거리 ③ 재료에 대한 조명 ④ 관찰자의 특성 및 상태로 요약될 수 있다.[24]

그 대표적 작가의 작품의 예를 보면 Lenchro의 재료와 색채적 결합과 Wong의 재료와 물질형태결합 작품을 통해 질감에의 영향을 나타낸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재료의 질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소들과 재료가 가지는 일반적 성질 이외에 각 재료에 대한 연상적 의미가 부가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실내건축디자인에서 무겁고 장중하고 운치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면 주변의 모든 재료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질감의 대비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패턴(Pattern)

선, 형태, 공간, 빛과 색채의 사용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은 보통 2차원적이거나 3차원

---

23) Wucius Wong, 『디자인과 형태론』, 최길영 역 (서울 : 도서출판 국제, 1994), p.119.
24) 박종백,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 재료의 질감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4), p.13.

적인 장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배열이다.

패턴이란 실내마감재의 무늬로서 프린트되거나 짜 넣은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단위화된 재료가 조합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공간에도 무엇인가의 패턴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티브의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모티브는 자연적인 것, 양식화된 것, 추상적인 것 등으로 구분되는데 꽃무늬와 줄무늬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공간에 주게 되나, 적절한 모티브가 어떤 것인가를 공간의 제 요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25]

5) 빛(Light)

빛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탄생의 기원이다. 재료가 가진 형태를 표현하는 근본적 요소인 빛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형태는 존재할 수 없다.

빛은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역에 있고자 하며,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빛이 재료에 생기를 불어넣는 실체적 요소로 사용될 때 재료는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형상화된 재료에 대한 인지(영역, 크기, 방향, 인지)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인지의 속성들은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부여되어 재료를 경험하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빛은 유리와 콘크리트 구조체를 강조하는 시각적 Solid와 Void의 관계, 투명, 반투명, 불투명한 재료들의 복합적 사용에도 관계하면서 조형적 측면과 재료와의 상관관계에서 부각되는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다.

빛에 의한 투명성의 효과는 재료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재료의 형태나 색, 기타 다른 요소와 연관되어 확장되어 보이는 시각적 확장의 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재료 자체의 극적인 정점을 형성해주거나, 방향성을 유도한다. 빛은 비물질적 실체로서 빛을 받는 소재와 형태 및 기타의 제반조건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시각적 효과 및 인간의 감흥을 부가시키는 역할을 한다.[26]

---

25) 박홍, 『실내디자인론』(서울 : 기문당, 1993), p.78.
26) 김남헌, “빛에 의한 건축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0), pp.74-76.

6) 방향

모든 물체는 방향이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인간의 느낌은 달라진다. 방향에는 수직방향, 수평방향, 사방향, 운동방향, 나선방향이 있다. 수직방향은 중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많은 건축이 수직방향을 두며 심리적인 효과는 엄격하게 위엄을 가시하며 절대적이다. 수평방향은 수직방향에 비해 중력과 균형을 갖추어 안정되고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평화롭고, 친밀하고 평범한 느낌을 준다. 사방향은 수직이나 수평방향에 비해 불안정한 자극을 준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느낌은 심리적 효과를 더해 안정감, 위엄성, 가시성, 중력감 등으로 나타나는 점에 실내건축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명암

명암이란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각적 깊이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채도와 명도가 높을 때 밝은 색은 실제 면적보다 넓은 느낌을 주며 채도와 명도가 낮을 때 어두운 색은 실제 면적보다 좁은 느낌을 준다. 밝은 색은 돌출되어 보이며 어두운 색은 침침하고 깊숙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이 색의 명암을 잘 살릴 때 원근감과 입체감을 살릴 수 있게 되며, 대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실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27] 따라서 실내 건축디자인에서의 명암과 색의 요소 및 원근감과 입체감을 고려한 디자인은 매우 중시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8) 크기

인간은 모두 각자가 그 크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크기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르다. 작은 물체에서는 귀엽다, 섬세하다 등의 느낌과 큰 것을 볼 때 우람하다. 억세다. 거대하다. 장엄하다 등으로 모든 인간은 공통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통된 느낌의 크기 관념은 인간 자신의 크기에 기준을 둔 것으로 크기는 척도 즉, 스케일을 말한다. 척도는 건물의 요소와 공간을 다른 형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데에 관한 것이다. 어떤 요소의 크기에 대한 시각적 측정에서 인간은 크

27) 김남현, 상게서, pp.74-76.

기를 알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이용하여 그것에 견주어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곧 스케일 부여요소로 알려진 것들이며, 이러한 유형에는 정체적인 맥락속에서 다른 형태와 건물요소 크기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 척도와 건물요소 또는 공간의 크기와 인체지수 및 비례와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인간적 척도가 있다.

9) 비례

인간은 어떤 장소에 어떤 재료를 배열했을 때 재료와 재료 간에는 형태, 색채 등에 있어서 길이, 폭, 면적, 크기를 심리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된 상태로 보려는 습관이 있다. 이를 비례미라 한다. 비례에 대한 관념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모든 재료의 크기와 이미 공통된 척도에 관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재료는 그들 고유의 강성 및 취약성에 의해 지배되는 합리적 비율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 성질과 기능 이외에 그것들이 부품화 되는 과정에 의해 크기와 비례가 결정되기도 한다.

모든 비례 이론의 취지는 시각적 구성요소들 간에 질서 감각을 창출하는데 있다. 기초적인 비례체계는 건축의 형태와 공간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 결정 요소와 별개의 것으로서 그 치수에 대하여 미적 근본원리를 부여한다.

제2절 비물질적 표현 특성과 적용

1. 비물질적 표현 특성

건축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보면 먼저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교란하여 나타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개체들의 동질적 변형, 단일 개체의 이질적 변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케 되는 경향이 높은 데, 이는 여러 가지 물성 교란 방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명확히 분류하기는 힘들다. 즉, 새로운 재료나 인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재료나 구축, 법들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 방식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료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접합 및 축조 방식과 구조형식에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의 특징을 통일화시켜 집약할 수는 없다.

이 시대의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덧없음'과 '가벼움'에 대한 질문은, 기술과 인간의 상태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질문이다. 만약 니콜라스 크림쇼식의 예의 가벼워 보이고, 간유리적인 구조체를 창조하는데 기술이 유용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 질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건축의 진정한 중요성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격렬한 혼란을 부채질 할 뿐이다. 덧없음의 '미학'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해 보았을 때 그것은 기술과 관계된 존재와, 세계-내-존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지위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본질적으로 건축적이기 보다는 구원론적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미학(Aesthetice)'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28]

현대 건축디자인에서의 재료 사용에 있어 보다 가볍고 빛나며 날렵한 것들을 찾아 선호하고 있다. 현 시대의 인간은 새로운 소재의 금속과 투명유리, 그리고 광택이 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투명하며 심플한 건축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 시대의 복잡한 감각과 인간의 감성적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 즉 '본다'는 것은 흔히 말이나 문자보다 앞서면서 개인이 자기 바깥의 세계와 관계 맺게 해 주는 중립적이고 생리적인 지각의 통로로만 생각되기 쉽다. 시각은 그 직접성을 통하여 바깥세계의 진실을 곧바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기도 한다.[29]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명료하거나 자명한 사실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경치를 바라볼 때 '한폭의 그림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

28) 송은아, "정보화 시대의 공간 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1), p.44. 우리에게 '미학(Aesthetic)'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의 철학'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미학의 어원적인 의미를 Aishesthai- 지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학은 엄격하게 말하면 지각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움에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Kalonology(Kalone+ology : Beauty_study of)라고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덧없음의 미학'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우선 지각범위 밖에 있는 찰나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문제의 한계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계는 시간 그 자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시간의 관계인 것이다.

29) 한영경, "바람을 향한 갈망 : 덧없음의 미학과 가벼움의 건축에 대하여," 『이상건축』, 7 (1999), p.129.

것은 대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지각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림 또는 이미지의 영향을 받으며, 직접적인 시지각에 앞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삼는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비물질성은 경량성과 함께 전통적으로는 건축에 있어서의 구축이라 함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따르며, 영원히 구축되어 있고 장소에 대한 공간의 형성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개념의 차원에서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개념이 추가 된 것이다. 그래서 고정된 시각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는 현대 건축은 '고정적이지 않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영원성에 대한 무가치함'을 표방하며, 이것은 가설적인 일시성으로 표현하는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30]

변화한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동일한 색채의 그림의 연속, 벽지 도안의 반복, 동일한 세로 및 가로줄의 연속과 같이 반복되는 것은 이미지 체계를 연속성과 항상성에 있어서 치밀한 구성이 되게 한다.[31] 그러나 엄격한 반복은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가진다. 낯설음과 낯익음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변화를 통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반복하는 것은 단순 반복의 단조로움과 그 차이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며 건축디자인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물질적 특성을 디자인 관점에서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표현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비물질성 적용

공간에서의 비물질성은 일관성 있게 발전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다. 다만 공간이라는 것이 '물질적 구상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비물질성의 적용범위는 건물의 물성표현과 구조, 공간의 경계면과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내 디자인 분야보다는 건축분야

---

30) 한영경, "바람을 향한 갈망 : 덧없음의 미학과 가벼움의 건축에 대하여," 『이상건축』, 7 (1999), pp.128-129.

31)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New York : The MIT Press, 1996), pp.312-313.

에서, 형상이나 조형보다는 재료표현에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근대건축에 있어서 철과 콘크리트, 유리 등의 재료에 대한 탐구는 이전까지 고전건축이 지배해 온 건축개념에 대한 전환점을 제공하여 왔다.

구성주의 건축가 리시츠키(Lissitzky)는 '가상적 공간'이 현대공간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공간 지각적 개념이라 정의하고 이를 '비물질적 유물론'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가상적 공간은 대상의 진동과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며, 대상에 대한 순간적 영상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물질적 성격을 가진 동작에 의해 공간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32]

데스틸(De Stijl) 시대의 공간에서는 순수추상을 통한 비물질성을 표현한다. 자연주의적 표본으로부터 결별한 형태 언어를 이상으로 하면서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분해되는 형태를 추구했다. 이는 자연과 대립하는 미학으로서 물리적 특성을 배제하는 공간 표현을 뜻한다.[33]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공간은 형식과 기법으로부터 개념의 세계를 분리하여 본질을 나타내고 본래 모습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극소화된 형태와 절제된 간결함으로 물질성을 없애며, 단조로운 색채와 시각적 요소를 배제하여 공간을 표현한다. 수평과 수직의 단순한 공간, 기하학적 선과 형태의 조합, 단일하고 반복적인 구성, 밀도가 낮은 공간의 텅 빈 이미지로서 물질성으로부터 환원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재료에 있어서도 투명, 불투명, 반투명의 재질을 사용하여 굴절, 유입, 반사 효과를 나타내고, 시점과 시간에 따라 재료의 효과를 달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자체의 물성을 약화시킨다.

해체주의 공간에서는 비정형적 추상디자인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완전함에 대한 침해행위'를 주장하는데 기본 물리학의 개념을 부정하고 중력에 반하는 디자인, 입면의 단절로 물질성을 감소시킨다. 우연성을 강조하고 비논리적 병치와 꼴라쥬 수법으로 충격효과를 표현한다. 이러한 비정형적 디자인 개념은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난 비물질의

---

32) 리시츠키의 4가지 공간개념 중의 하나로 영상원리에 바탕을 둔 가상공간(Imaginary space)으로서 연속작동과 시각의 실제 깊이에 따른 인상으로 나타난다.

33) 박혜원,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2), p.93.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의 역사는 물질의 새로운 시도와 함께 하며 물질의 발견과 물질을 다루는 방법, 물질자체의 존재의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 창조를 제안하는 것이다.[34] 근대 이후에 정립된 공간의 물질성은 물질의 존재와 결함, 형태의 창조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반형태주의적 개념들은 재료의 물질성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대의 건축공간은 재료와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감추고 지우려 한다는 의미에서 비물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현대적 상업공간에서의 비물질성은 해체주의적인 반형태성, 투명한 재료의 표현을 통한 경계성 및 중량감의 제거, 구조와 공간의 분해를 통한 구축성의 소멸, 미디어적 특성을 이용한 건축표피의 물성상실 등 모든 공간의 재료와 형태, 이미지 등에서 물질감을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질성과 비물질성이 함께 공존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물질적 이미지와 가상적 이미지가 혼재하여 결합하고 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대 공간에 있어서 비물질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그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공간이 가지는 물성이나 재료에서 나타나는 재료표현적 관점에서의 특성이며, 둘째는 공간의 경계 이탈 또는 중심의 이탈이라는 구축성 상실의 측면을 포함하는 공간개념적 특성에서의 관점과 셋째는 매체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의 상호전달 측면 즉 매체적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점에서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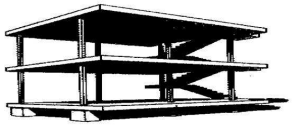
3. 비물질화 경향

현대건축디자인공간은 가능성 있는 공간적 전망을 통합하려는 디자인을 꾀하기 위해 합성물질, 특수유리, 플라스틱 등의 투명한 성질의 것을 활용하고 있다. 안과 밖은 유기적 관계에 있고, 건축에 있어서 모든 시점은 공간의 가장 넓은 가시적 포용성과 함

34)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t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pp.42-43.

께 우선 투명한 재료에 의한 밝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실리콘, 광섬유 등의 신소재를 이용하여 변형가능하고 합성적인 하이브리드 재료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35](표 2)

표 2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 경향

비물질화분류	작품표현	작가/작품명	세부경향
재료적 측면		미스 반 데 로에 -Barcelona Pavilion, barcelona, spaine. 1928-1929	반사성 -크롬의 반사성은 빛을 반사하여 공간을 보다 부드럽고 활동적으로 만듬 -간접적인 조명은 지붕으로 인하여 어두운 내부공간을 확장시켜줌
경계적 측면		미스 반 데 로에 -콘크리트조의 오피스빌딩안 .1922	-콘크리트 구조를 내력벽이 아닌 “본래 내제된 골조”로 확신. 골조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각층의 바닥은 그 아래의 구조체보다도 뻗어 나온다
매체적 측면		르 코르뷔제 -신건축의 이론적 토대	도미노 이론 -근대건축에서의 기둥과 슬라브에 의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됨 -자유로운 벽체

이렇듯,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는 재료를 통한 표현으로 그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유리는 투명한 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각적 개방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안과 밖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모호함마저 제공한다. 또한 기존 건축공간이 갖고 있는 구축적 성격이라는 한정된 성격에서 벗어나 공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및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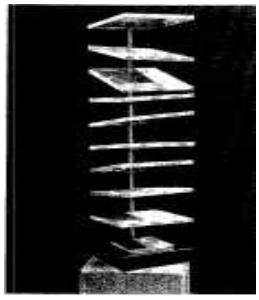
35) 이관희, 윤도근, “근대 건축이후 나타난 벽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1995), p.237.

한편, 예술에서의 비물질화 경향을 보면, 예술에 대한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은 기계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료와 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네온, 종이, 기타 건축재료 등 가벼운 소재로 이루어진 것들이 조각의 재료로 쓰이게 되고 방법 또한 주물뜨기, 깍아내기 등의 수공법에서 벗어나 쌓거나 잇거나 조립하게 되는 새로운 방법의 사용이 빈번해 진다.

특히,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손이나 기류 또는 모터를 동력으로 하여 유동성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주류를 이룬다.[36]

조각의 전통적인 개념인 견고성과 완결성을 탈피하려는 키네틱 아트는 선에 의한 표현을 강조하고 움직임에 의해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경쾌한 형태를 지닌다. 칼더의 모빌은 대부분 천장이나 가는 철선의 한 점에 매달려 있고, 리키나 타키스의 작품을 포함한 많은 키네틱 아트작품들도 가는 기둥이나 철선에 의해 지지되어 움직인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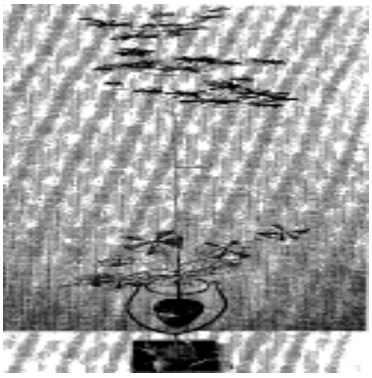
그림 5 키네틱 아트

작가 /작품명	알렉산더 칼더(1939). 새우잡는 올가미와 물고기 꼬리	조지 리키(1967). Column of Nine Planes.	바실라키스 타키스. 자장
작품			
비물질화 경향	벽체의 선의 표현을 움직임에 의한 공간적 구성을 기화학적 형상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움직임의 경쾌성 표현	단순한 철선의 한 점에 매달려 있는 아트적 작품 성향을 통해 경고성이나 완결성 탈피	점과 선에 의한 움직임과 공간적 특성을 가는 기둥, 철선을 지지로 움직임 형상의 유동성 부각

36) Robert Atkins,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석 역 (서울 : 시공사, 1994),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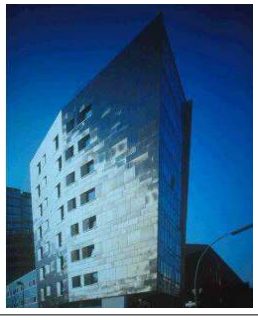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중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갖는 키네틱 아트도 있는데, 오토 피네의 수소로 띄운 붉은 스카이라인 같은 작품들은 수소 부풀려진 튜브를 하늘로 띄워 자유롭게 나부낀다.(그림 6)

그림 6 오토 피네(1959). Wind Flower



이러한 무중력적인 이미지는 건축디자인에서 자하 하디드나 레베우스 우즈의 드로잉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반중력적 형태들은 과거의 고정된 개념을 탈피하여 공간과 형태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반중력적 형태

작가/작품	자하 하디스의 뒤셀도르브 미디어 센터	레베우스 우즈의 드로잉
작품		
반중력적 형태	독일 뒤셀도르프 미디어 센터 반각처리를 통해 지구 위에 떠 있는 듯한 형태로 기존 건물의 고정된 개념을 탈피한 기화학적인 반중력성을 강조	지지꼴의 형태가 우주를 향한 무중력이나 반중력의 형태를 움직임 형상을 통해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지방식의 새로운 변화 시도

건축과 조각의 전통적인 개념이었던 고정과 부동성 그리고 매스감과 볼륨감을 여기던 특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작품의 비물질화와 반중력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특히 볼륨이 감축되고 지지방식이 변화하면서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 모습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그림 8)

그림 8 노만 포스터의 비물질화와 반중력화 비교

작가/작품명	런던 Canary Wharf 지하철 역	
작품		
비물질화 형태	넓은 공간의 천정을 가벼운 경스틸로 지지하고 단조로운 가운데 높고 넓게 상징적 지지대를 사용,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	접근 모형을 이상적 연결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완만하게 연결시켜 물성 표현의 단순미와 구도의 조화를 통합, 종합적 이미지로 융화

작가/작품명	영국 LSE 도서관	런던 시청
작품		
반중력화 형태	층간 모습을 타원형으로 휘감아 도는 우주형상의 반중력화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 마치 독립된 허공에 떠 있는 형상 표현	우주적, 태극형의 말림꼴 모형의 상층부 처리를 고정+부동성의 매스감과 볼륨감의 조화 시도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키네틱 아트의 뒤를 있는 테크놀로지 아트는 환영주의(Illusionism)에 기초한 이미지와 실재의 역설적인 표현, 물질의 비물질화, 빛・색・형태의 변형 등 새로운 상황과 조건들을 창조하고 있다. 시각적이고 표현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물리적 공간의 환영 외에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영역의 환영 즉 사이버 문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37]

테크놀로지아트 중에 컴퓨터아트는 시각적인 것과 상호 대화적인 것의 두 가지 개념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컴퓨터아트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비물질성인데, 그것은 '작품들'이라는 것이 결국 추상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목적으로서 체험된 지각이 오늘날에는 작동양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아트는 정보의 분배 시스템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보다는, 이 네트워크들이 암시하는 상징적인 차원에 자극을 받으며, 이러한 새로운 차원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간의 새로운 형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지각, 영상의 새로운 영역 등에 이르도록 한다.

비디오아트는 근본적으로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예술장르로서 기록성과 일시성, 자기 성찰 등 사실에 대한 재현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하는 예술적 맥락에서 비디오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하고, 형식주의 예술에 반발을 하였고 예술표현 방식의 확장, 공간과 환경과의 구성 등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 예술양식이다.

현대건축에서 비물질화의 흐름을 보면, 철과 유리는 건축디자이너들에 의하여 기계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재료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표현화되었고, 건물에 투명성을 부과하면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내적 움직임을 나타내었다.[38] 그 대표적인 작품은 미스의 판스워드(Fansworth House) 주택이다.(그림 9)

그림 9 판스워드 주택(Farnsworth House)
판스워드 주택은 미스의 유니버설 스페이스 개념과 기둥이 없는 큰 공간개념이 반영된 작품

이 주택의 경우 바닥 슬래브를 지면에서 몇 피트 정도 들어 올린 것 같은 부유한 형

37) 배성윤, "기술매체 환경 변동에 의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연구," 『홍산미원』 (1999), p.11.
38)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 1 1910-29,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64),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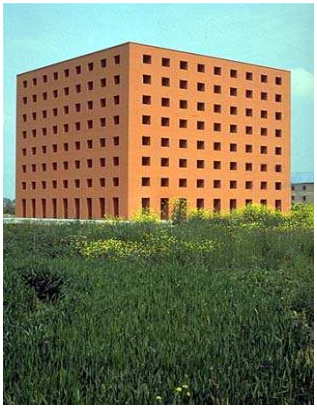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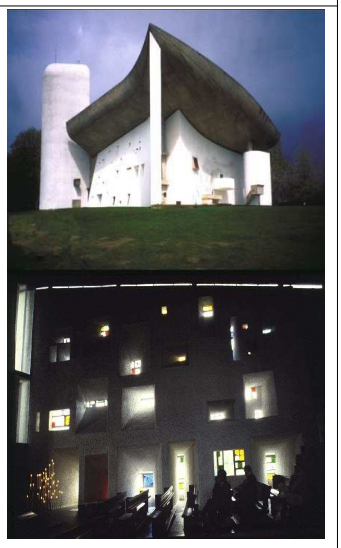
태로 되어 있고 개방적인 유리벽의 사용과 자연의 풍부함과 대비된 세련된 기술의 상징으로서 철재평면에 칠해진 백색과 평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보다는 구조적인 의도보다는 시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39]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의 기술과 함께 극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하이테크 미학을 창조하려는 형태의 이론적 측면과 지역문화와의 연속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와 전통을 참조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탈근대주의(Post-modernism)로 구분된다.[40]

포스트모던 작가들 중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는 '건축디자인은 대중들에게도 의사전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디자이너의 코드와 대중코드의 이중 코드화를 통해 대중지향적 태도를 지닌다. 근대건축의 이념은 사회구제의 도구로서의 건축과는 다르게, 의사전달의 건축을 지향하였다. 클로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설화성을 강조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제일 중요한 척도는 건물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설화적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41](그림 10)

39)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p.18.
40)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서울 : 국제출판사, 2001).
41) 송은아, "정보화 시대의 공간 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1).

그림 10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작품명	필립존슨 : AT&T 빌딩 1978-1984	알도로시 : (Cemetery of San Cataldo)1971-1980	르 코르뷔지에 : 롱샹교회
작품			
포스트 모더니즘형태	AT&T 빌딩은 별반 특징이 없는 벽돌과 유리 마천루의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쪼개진 박공벽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빌딩의 규모에 대해 기묘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으며, 이 빌딩을 보는 사람의 기대감을 뒤집어 엎고 있다.	단순성은 건물입면에서부터 건물형태에 이르기까지 잘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러한 단순화를 통해 그만의 건축물로서 아이덴터티가 배가된다. Cementery of San Cataldo의 납골당, Centro Torri Shopping Center와 Casa Aurora 등을 통해 그의 장식을 배제하면서 건물형태의 순수한 도형화 작업화시키는 그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입체가 서로 맞물린 복잡한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방에서 건물을 감싸고 있는 광대한 지평선에 노출된, 역동적인 하나의 몸으로 보인다.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의 기조'를 이루는 빛을 롱샹의 내부로 끌어들였다. 작게 뚫린 채색유리, 부속성당의 '모자' 지붕벽 모서리의 '틈'을 통해 빛이 성당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미니멀 아트가 발생한 이후 미니멀 건축은 내부를 감싸는 평활한 표면과 개방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재료의 경량화와 비물성화를 표현하고, 기하학적인 경계를 지닌 공간으로 느끼게 된다. 건축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극단화로서 재료의 비물질성을 의미하는 유리재료의 사용에 관해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투명한 경량재료의 사용은 미니멀한 건축디자인의 명료함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42] 그의 건축에서 사용되는 유리면은 실제적 투명성의 가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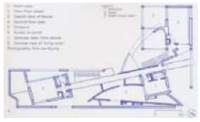
42) 김혜자, "탈경계건축 : 도요 이또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연구회』, no.36호 (2003), pp.33-42.

유리가 갖는 견고하면서도 깔끔한 외장 재료로서의 역할 또한 보여주게 되는 데 미니멀 건축에서의 재료적 즉물관의 극단적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1988년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해체주의 건축'과 런던 데이트 갤러리에서 있었던 해체파 미술가의 세미나를 통해 처음 표명된 해체주의는 실외의 요소가 실내공간으로 침투하고 실내공간은 대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탈피한다. 포스트모던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변칙상황들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에 반해, 해체주의 건축은 처음부터 과학패러다임을 디자인 방법론으로 삼았으며, 근대건축이 시도한 4차원

공간에 대한 추상적 언급이 움직이는 건축 등의 시간성을 도입하는 대신, 건축의 구조를 정하는 기본 전제였던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43]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해체주의 건축에서의 철과 유리 사용의 보편화를 토대로 구조재료의 발달을 통해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의 건축형태의 확산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그림 11)

그림 11 김영섭과 건축문화설계소의 J주택

작가/ 작품명	김영섭과 건축문화설계소의 J주택 적용사례			
작품				
	Floor Plan	Stair	Entrance	Living Room
	Exterior		Court	
해체주의 경향	실내와 실외의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밀폐 공간의 제거와 동시 철과 유리의 사용을 강조하여 구조재료의 투명성과 경량성을 강조하여 산뜻하고 거리감 구별 없는 새롭고 가벼운 느낌을 강조			

20세기 후반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성'이란 의미로 급속히 확산된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의 개념은 일반적인 물질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는데, 각각의

43) 김혜자, 상게서, pp.33-42.

형질이 하나의 구속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비트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 곧 단형의 형질로 미화된 물질로, 물질이 아닌 비트일 뿐이다. 물질이란 구조로부터 벗어나서는, 비트의 형태로 전환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트란 물질로부터 벗어난, 탈물질화된 기질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44] 사이버 건축가인 마르코스 노박(Marcos Novak)은 작품인 '전송건축(Trans Architecture)'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축의 비물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45](그림 12)

그가 작업한 사이버스페이스는 거주 가능하고 상호작용하는 영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존재와 범위 확장의 경계는 엇갈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안하는 Liquid Architecture란 물활론[46]적이며, 추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변동하는 건축이며, 음악으로 향하는 건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비물질화로 향하는 건축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 또한 비물질화 되어 있는 건축을 의미한다.

그림 12 마르코스 노박의 전송건축

이와 같이 현대건축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특성은 물질의 분해를 통해 재료표현의 탈구축성과 경량성, 투명성으로 미디어적 공간과의 결합을 통해 초표피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44) 김원갑, 『건축과 해체』(서울 : 세계사, 2000), p.68.
45) 박혜원,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2), p.93.
46) 라도삼, 『비트의 운명, 네트의 사회』(서울 : 케뮤니케이션북, 1999), p.23. 범심론(汎心論)의 한 형태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본질상 생명을 가지며 생활력과 영혼을 가진다고 하는 학설.

제3절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표현

1. 현대실내건축의 패러다임 및 경향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토마스 쿤(Thomas Kuhn)[47]이 과학적 사고와 과학문명의 구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Kuhn은 패러다임을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解(universally recognized solution)' 또는 '합치된 일치'라고 정의하였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구조가 말해주듯 새로운 과학의 발전은 항상 다른 영역들의 변화를 수반하며, 건축과 예술 역시 새로운 과학적 이론과 지식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양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은 그 적용대상과 물질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 왔는데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다임을 건물 유형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 건축의 작품과 표현은 특정한 유형 즉, 모범형식의 모방과 변형으로 간주된다.

둘째, 패러다임을 논리, 텍스트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 특정시대에 인정된 건축이론을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패러다임을 유형 또는 모범으로 보는 경우, 물리적 특성과 그 형태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논리와 관련된 사고체계로 보는 것이 건축의 총괄성을 복합성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은 집단적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일치'를 의미하며, 그 집단구성원의 '사고성향'과 '건축운동의 특성'을 지시하거나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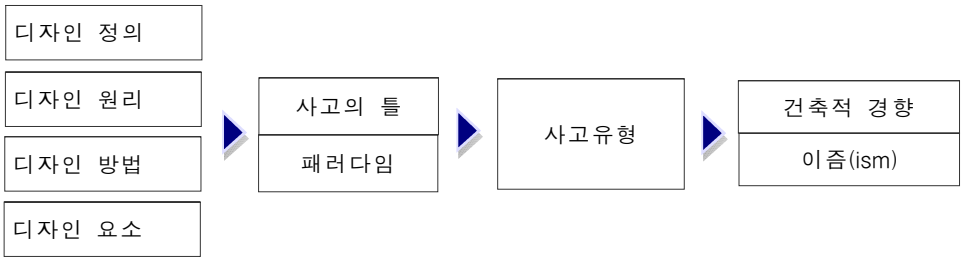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축가 자신의 사고의 성향과 이에 따른 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어 건축적 표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을 건축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사고체계로 이해할 때, 건축가 집단이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구체적인 표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7) Thomas S. Kuhn,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서울 : 까치, 1999), p.293.

패러다임에 의한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보면, 사고유형은 건축가가 개념적 틀로서 의지하는 표현을 위한 표현모델의 성격을 띠는 건축적 사고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그림 13) 여러 건축가들이 명명한 건축운동이나 이즘들은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축적 개념이나 원리, 방법, 의도 등은 이러한 건축적 사고유형에 따라 지향되는 속성들로서 표현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도구가 된다.

그림 13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유형의 도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유형에 대한 분석은 야구스(Jauss)[48]에 의해 60년대 이전까지의 문학 연구 방법론의 기조가 되어온 패러다임의 유형은 ①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classical-humanistic paradigm), ② 역사적-실증적 패러다임(historicist-positivist paradigm) ③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formalistic-aesthetic paradigm) ④ 수용 미학적 패러다임(rezeption saesthetik paradigm)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야구스가 제안한 패러다임의 범주에 대응하여 길성호(1991)[49]는 건축적 사고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문화 산물로서의 건축적 개념과 고전적 규범원리의 재생을 중시하는 유형학적 사고유형이 이에 속한다.

둘째, 역사적-실증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건축의 외적 상황과 내재적 본질로부터의 출발을 중시하는 기능적 사고유형과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이 이에 속한다.

48) Hans Robert Jauss, *ibid.*
49) 길성호, “패러다임에 의한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셋째,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대상 자체의 자율적 형식구조와 표현성을 중시하는 기하학적 사고유형과 심리적 사고유형이 이에 속한다.

넷째, 수용 미학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인간-건축환경 상호간의 관계성과 인간의 체험구조를 중시하는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이 속한다.[50]

이들 사고유형은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제안된 것으로 건축가의 사고와 작품을 관련지어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적인 분류이다.

2. 현대실내건축의 재료표현양상

1) 표현특성

실내디자인 표현은 재료의 속성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나므로 재료의 결정은 디자인 원리의 표현적 의미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은 특별한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많은 재료들로 구성된 적당한 재료와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대건축에서 재료의 표현은 항상 재료의 특성 그 자체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표현 감각 체계가 복합화된 현대는 재료의 표현 또한 복합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동일한 재료로 거친감과 따스한 감각, 엄격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이중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재료는 자연 형태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결점, 즉 형상의 통일성 결여, 수량의 한계성, 산지와의 운반비 가중 등으로 인하여 점차 인공화 되어가고 있다.[51] 건축의 주된 소재였던 유리, 철, 콘크리트로 표현되는 근대 건축의 시대에서 현재는 재료공학의 발전으로 건축 재료의 모듈화와 신소재의 개발은 건축 표현의 한계를 확장시켰으며, 건축표현에 있어서 재료가 차지하게 되는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심지어 특정한 재료를 사용한 건축스타일이 현대 건축의 어떤 한 부분을 이끌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도 그대로 유입되어 나타난

---

50) 정진오, “패러다임에 의한 한국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8),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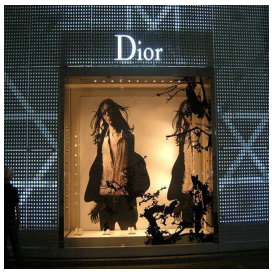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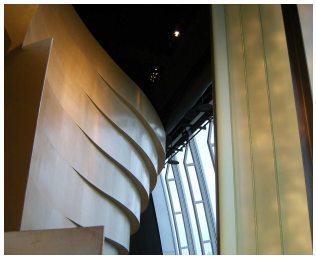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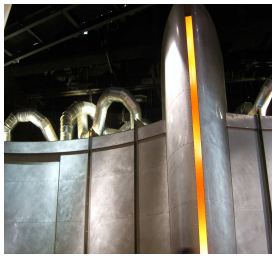
51) 김희춘, 건축 역사와 그 소재, 월간 건축과 자재, 1989.6, p. 44.

다.

이렇듯 건축과 병행되어 온 실내디자인의 흐름은 디자인 표현 수단에서 갖가지 건축의 표현미를 받아들이며 실내건축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재료표현에 관한 한 건축보다 실내건축에 더욱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간에 대한 재료의 다양한 표현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근대 이후 공업재료, 신소재의 개발에 의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실내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재료 공학의 발전이 뒷받침한 수단적 배후 환경과 실내디자인 자체의 풍요로운 표현성의 추구는 재료와 조형간의 동조성을 훨씬 강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료와 조형간 동조성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재료와 조형간 복합요소

분류	재료자체표현	조형요소로의 표현	재료조형의 복합요소
확장성			
복합성			
상호작용성			
동조성	재료 자체의 기본적인 속성을 넘어 어떤 재료도 표현적 수단이 되며 종래의 통념으로서 재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재료는 표현적 수단에서 단순한 부가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신이 매우 직접적인 수구력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재료가 실내디자인 관점에서 갖는 입장은 최종적인 면에 나서는 경우도 있게 된다.	보다 많은 제품의 선택성이 보장되고, 모든 재료는 조합되거나 재구성되면서 보다 섬세한 코디네이션의 조형을 이룬다. 이는 재료 조형에 있어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하게 된다.

통념상 모든 재료는 사용상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 있고, 이 특질이 존중되는 것은 기본 조건이다.[52] 그러나 재료 공학의 발전은 재료가 반드시 재료 자체의 특

52) 이호진, 『건축표현사고』 (서울 : PLUS 2001), p.129.

성에 머물지 않고, 목재는 가소성을 얻을 수 있고, 석재는 투명성으로까지 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재료 자체가 디자인 표현의 주체적 요소가 됨에 따라 실내건축의 재료가 구조재와 마감재로 구분되던 통념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고, 구조재, 마감재, 장식재의 역할은 따로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다.[53]

2) 재료의 역할

근대 실내건축에서 재료의 솔직한 표현이 특징이었다면, 현대의 실내건축은 재료의 다양한 가공성과 작가마다 선호하는 재료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재료의 사용보다 합성재의 사용이 확대되고, 신제품 재료의 개발에 의한 실내건축의 도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54]

재료를 이용한 실내건축은 1960년대 이후 현대 실내건축의 특성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재료에 있어서의 현대 실내건축의 과제를 상징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재료는 공간을 결정짓는 2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공간 장식의 주요소가 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고재를 이용한 감각적인 시각의 표출, 색유리를 막은 대리석, 자갈과 모르타르의 조합, 패턴을 이용한 그래픽 효과 등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 재료는 다양한 공간에 주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공간에 있어 재료의 구성은 그 공간의 성격, 질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실내건축에 있어서 재료는 환경예술, 기술의 발달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 표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미지의 표출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나 바우하우스 이후의 예술과 디자인에 도입된 공업재료는 실내디자인에도 빈번하게 사용되어 정착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예술에 있어서는 그 표현영역의 확장과 함께 재료에 있어서 유리, 금속,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53) 박길룡, 『건축의 재료 조형』(서울 : PLUS 2001), pp.132-133.
54) 이재규,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1), p.87.

등과 같은 소위 합성수지의 공업재료가 사용되어 예술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실험이 행해지고 그것이 점차 사회환경 속으로 침투해 가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따라 공업재료의 차가운 질감은 현대 실내건축 공간의 성격을 특징 지워주게 되었다. 이러한 공업 재료는 자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조형 작가 혹은 실내 디자이너에 의해 가공되어 사용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의 확장, 새로운 공간의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재료와의 조합에 의해 장식의 효과를 부각시키기도 한다.[55]

재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건축 재료가 실내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 있어서 건축과 실내건축의 한계가 흐려지고 실내디자인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건축 재료에 의한 실내구성이 건축과 실내간의 두 영역을 초월하고 있다.

3) 재료의 디자인 접목성

최근 기술발전과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인류생활은 크게 변화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재료의 등장과 개발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오늘날 발전을 가속화하는 현대 테크놀러지는 새로운 재료와 가공기술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디자인의 미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테크놀러지는 양식을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른 디자인의 특징적인 양상을 만들어 내고 그 시대와 지역의 개체성을 부여하는 창조행위의 표현방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행위는 의식적, 문화적인 활동이므로 테크놀러지의 기능은 외적인 차원에 머물기보다는 그 내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56]

최근 실내에 사용되는 장식 재료를 볼 때, 매끄럽고, 딱딱하고 차가웠던 과거의 재료는 점차 쇠퇴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료들이 새로운 특성이 부여된 상호 절충적인 방향으로 디자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물체의 표면에 특별한 생명력을 주고, 표면의 주위, 배경, 역사와 함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대량 생산된 디자인 재료들

55) 한우석, “국내레스토랑 실내마감재의 사용현황과 색채 표현분석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pp.34-35.
56) 허구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비물질화 경향 고찰”(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과 발달된 기술력은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표현에 있어서는 점차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재료가 갖는 디자인적 의미는 점차 감성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좀더 가볍고, 좀더 강하고, 좀더 질기며, 더 나아가 인간의 오감과 같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관념적인 것이기보다는 실체이기 때문에 재료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디자인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의 다양한 가능성과 그 심미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감각을 자극하고 재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료와 디자인의 조화, 그리고 디자인에서 재료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적 특성

현대의 공간은 물질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명한 표피를 사용한다. 투명성을 통하여 건물의 내부공간과 인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투명도 조작으로 공간영역의 기능과 그곳에 수용된 프로그램을 외부에 드러내어 삶의 리얼리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57] 것이다. 또한 가벼운 재료, 즉 구축적 특성이 감소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물질성을 드러낸다. 공간 내외부를 구분하는 재료와 마감의 물질감 대신 투명성을 등장시켜 내부와 외부의 개념을 없애고, 공간을 상호관입시키며 애매한 상태로 나눈다. 이는 경계의 모호함이라는 공간개념상의 특징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재료에 대한 비물질화는 재료의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물질을 제어한다. 이는 재료의 이질성을 부각하거나, 재료의 물성을 감추거나 전환하고 혼용하며, 혼합적인 재료를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재료를 겹치기, 즉 레이어링(layering) 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관찰자에게 허구적 이미지를 주게 되어 시각적 허구성을 생성하고, 재료의 혼용으로 물성이 상실되어 실제와 다르게 지각된다. 재료는 그 본디의 물성을 감추거나 전혀 다

57) 서용민, “건축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표현특성 및 발현의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p.11.

른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은유성이라 한다.

실내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블럭, 또는 유리패널을 통해 공간을 내외부가 없는 관통된 공간, 무한히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볼륨감을 표현한다. 내부이자 외부인 유리 재료는 거리에서 빛나는 마술적인 랜턴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밤과 낮, 고요함과 번잡함의 이중성 속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비물질성의 공간 적용의 특성에 있어 해체주의는 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전제였던 중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즉 무중력이나 탈중력과 같이 구축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여지거나, 철과 유리 사용의 보편화를 토대로 구조재료의 발달을 통해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의 건축형태의 확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58]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건축 혹은 가상건축에서는 탈중력성은 공간의 액질성을 뜻하는 데 추상적이고 변동하는 공간, 공간의 벡터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비물질성의 매체적 특성에 있어 매체적 특성은 공간의 정보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건물의 표피나 벽체를 이용한 정보제공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현대의 공간은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구축되고 지원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와 다중차원에 의한 표현, 동적인 조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환경을 지배한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건물의 미디어 표피가 제공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시성은 매체를 통한 정보가 영원하거나 지속성이 아님을 뜻한다. 끝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는 비고정적 정보로 다가온다.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미디어 표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감성적 표현, 에너지의 저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영원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며 소멸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58) 박혜원, 김정재,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no.3 (2002),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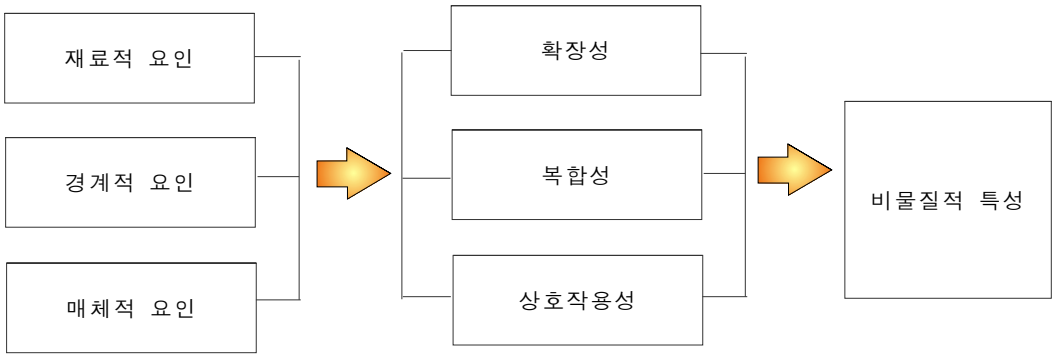
제3장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특성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분석의 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를 걷고 있는 실내건축디자인은 전반에 걸쳐 비물질성이 적극 응용되어오고 있다. 현대 정신과 물체의 고민으로부터 그 이론적 정립이 숨가쁘게 발전해 오고 있고, 이것은 물질과 비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론적 내용들을 토대로 비물질성 재료의 표현을 건축디자인에서 표현되어지는 물성의 다름과 물성의 없음으로서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적 표현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토대로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화 경향을 재료적인 관점과 경계적 관점, 매체적 관점으로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이는 재료, 경계, 매체가 가지는 형태라는 측면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서 확장성, 복합성, 상호작용성이 상승작용하여 기존에 가지는 이미지를 벗어나 탈이미지적 관점에 새로운 의미를 확대시키는 개념으로서 비물질성의 표현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4)

그림 14 분석의 틀



2. 분석요인

비물질성 표현을 위한 유형은 ① 재료표현관점 ② 공간경계적 관점 ③ 매체적 관점에 따라 각 요소가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 그 특징과 범위를 범주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표 4)

표 4 건축디자인의 비물질성 표현

유 형	요 소	표현 특징
재료적 요인	투명성	투명하고 경량성의 소재의 사용으로 구축적 성질을 감소시키며 내외부를 소통, 상호관입시킴
	확장성	재료의 이미지를 조작하건, 물성을 감추고 전환하고 혼용, 혼합적인 재료를 강조하거나 레이어링 시킴으로 시각적 허구성을 생성하고 물성을 상실케 함
경계 (공간)적 요인	복합성	물질의 중심과 이탈, 매스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전이, 부유감의 표현, 탈기하학적 표현
	경계의 모호성	공간의 물질적 존재감을 심리적으로 비물질화시키고 시각적으로 그 한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무한히 성장하는 공간적 확장감을 만들어 공간의 인식을 불확실하게 함
매체적 요인	일시성	가설적이고 고정되지 않은 정보,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미디어 표피로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를 표현함
	상호 작용성	시각적 오브제의 형태, 스크린이나 미디어적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움직임과 외부환경에 반응하고 정보를 전달함

자료 :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분석방법

앞의 재료적 요인, 공간경계적 요인, 매체적 요인을 확장성, 복합성, 상호작용성에 따라 실내건축디자인에의 사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해석을 통해 대표적 사례건축물의 작품 사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확장성으로 벽과 천장에 투사 및 채광된 빛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일종의 방향감각을 부여하고,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확장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깊이가 파악되지 않는 확장성은 신비감과 더불어 형이상학적인 체험을 유발하게 하는 현대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을 접목시킨 것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복합성으로 이는 '빛과 공간예술'에서 빛은 다른 재료 혹은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공간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를 말한다. 이런 새로운 공간관계는 인간체험을 중시하기에 상대적이며 복합적인 공간관계 즉, 모서리 해체, 반사, 겹침, 다층적 경계, 내외부의 간섭 등의 표현효과로서 나타나며 이는 현대건축공간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다용도 특성을 고려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호작용성으로 이는 다른 요소와의 결합력이 강한 빛은 새로운 광원,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게 탈물질적 공간을 형성한 본래 형태와 타물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는 상호 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탈물질화된 빛은 비일상적 시각체험을 제공하며 유희와 자극, 의외성을 통해 환상적 공간을 보여주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점증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을 범위로 한다.

제2절 비물질적 특성별 분석

1. 재료적 표현

최근의 재료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천연재료와 산업재료를 혼용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기존의 실내건축디자인에서 사용하지 않던 재료의 사용과 전혀 다른 느낌의 이질적인 재료를 혼용하여 질감과 색채의 대비효과 또는 병치 효과에 의한 긴장감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59]은 상업공간에서의 건축디자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고유한 물성을 지닌 재료를 사용하는 전례적인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특정 의도가 요구하는 특수한 이미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기시 하던 재료까지 사용하며,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의도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표현성을 추구한다.

59) '수사', '은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스까르빠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과 미니멀리즘 건축의 개념적 연관성에서 나타난 특성은 물성의 전환성, 암시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재료 특유의 물성은 지니되, 다른 재료를 연상하게 한다거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에 의해 새롭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스톤하우스'의 경우 주변의 축조적으로 쌓인 석재의 성질과 달리 콘크리트의 가는 구조재가 이들 석재와 상호교차함으로서 축조재로서 석재가 가지는 견고함과 표현재료로서의 석재의 성질이 공존하게 된다. 구조재 주변의 석재들은 마치 페인트로 바른 것 같이 보이며 이는 재료 고유의 물성을 가지나 다른 재료의 연상케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보여준다.(그림 15)

그림 15 스톤하우스

상업공간에서의 디자인에서는 한쪽 외벽에서의 나무 판넬로 정면의 일부는 전통적인 슝글로 구성함으로써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는 슝글같은 건축재료를 땅까지 늘어뜨린 흥미로운 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외장재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긴장감과 이질감을 통해 새로운 매장인테리어 이미지의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표 5)

표 5 현대건축 : 재료적 측면

요코하마 팬 퍼시픽 호텔	
기존 석재가 갖는 차거움과 딱딱한 이미지를 개방된 구조틀 형태의 단순 재료를 복합 사용하되 경계나 시각적 공간의 구분을 둠으로써 이미지의 다양성과 기둥의 콘크리트 재료의 단순성을 장식용 조형재료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재료의 덧붙임을 통해 새로운 접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경 시나가와 지하철	
곧게 뻗은 긴 터널형태의 통로에 파도형 웨이브 곡선과 중간 시각적 리듬과 빛을 상징하는 개방 돌출부를 기존 재료에다 덧붙혀 새로운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경계적 표현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비구축성에 관련된 논의는 지극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재료들과 상반되는 구성 재료들로서 가볍게 보이고, 투명하여 기존의 재료들보다 “구축적 특성이 감소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 혹은 “재료의 구축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왔다. 이는 가벼운 구조, 가벼운 경계면이라는 조형세계를 지향하며 기능, 재료 표현과 더불어 건축공간의 또 다른 이미지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벽이 없는 실내’에서는 공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 내부의 통일성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반해 바닥과 지붕을 구성하는 두 개의 평면을 사이로 외부경관이 보이게 함으로써 평할하고 균일한 공간의 가벼움을 나타낸다.

표 6 현대건축 : 경계적 측면

동경 롯본기힐즈 아레나	
고정틀에 웅장한 장식의 형틀을 높게 형상화시켜 공간과 공간을 연계시켜 장식 설치함으로서 공간 경계의 모호성과 틈을 메워주기도 하고 경계와 경계를 구분지어 주기도 한다.	
동경 롯본기힐즈 Keyakizaka Complex	
기존 건물에 덧붙여지은 형태의 경계의 파괴나 모호함을 상징적으로 구분시켜 준다.	
동경 인터내셔널포럼 외부	동경 인터내셔널포럼 내부
기존 단일 재료가 갖는 고정 관념에서 새로운 구조의 재료로 덧씌워 공간적 사용의 다양성과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드러운 곡선은 극단적이고 단순한 구조물을 통해 사라지게 되고 외부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완전히 투명한 공간을 만들면서 내외부의 경계를 가볍게 한다.[60]

이와 같은 사례로서 얇은 슬라브층들로 이루어진 연장된 불륨안에 수용된 투명성을 강조한 상업공간에서의 매장 인테리어가 가능한데, 이들은 서로 살짝 비켜가면서 지면에 파고든 커다란 선형공간 위에 떠 있는 듯한 사실감을 묘사함으로서 감소된 재료를 최대 억제하여 사용한다. 즉 캔틸레버 형상의 효과를 무중력, 반중력을 인식하게 해주어 이를 통해 매스감의 삭제나 상대감을 통한 부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표 6)

3. 매체적 표현

현대 디자인은 오늘날 더욱 진보된 기술에 의해 다양한 표현방식들을 지원받고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감성적 면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건축물 외관 디자인의 형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61] 이는 이미 멀티미디어와 다중차원에 의한 표현이나 파사드의 전자적 광고의 일부에 불과한 스크린적 수준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성으로 상호 작용하는 동적인 조각이 되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벽의 경우에는 몇 개의 레이어로 지각되는 마치 막같은 표피를 포함한 구조체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 벽들은 에너지 저장, 심지어 에너지 발전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와 매우 복잡한 설화적(narrative) 구조나 상호 작용하는 예술적 표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런 벽은 그 자체로 건축적 서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성시킬 수 있다.

실내매장 공간에 조립식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사이사이로 창문을 내고, 미닫이식 요소들은 시각과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합하게 함으로서 마감재를 아연 도금된 메탈 메쉬로 만들어 물질적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움직이는 플레이트는 용

---

60)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t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61) Christian W. Thomsen, *Mediaarchitecture-Part I : efining Positions* (a+u, 1995), pp.80-83.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비공간과 채워진 공간의 효과는 반투명의 메탈릭 블라인드를 통해 유동적인 스크린 파사드를 연출하게 한다.

또한 통로를 바라보고 있는 면과 건축 측면은 반투명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비추어지는 거대한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밤에는 반대로 조명의 발산을 통해 내부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비물질적 표현 유형과 그 하위인자인 표현요소를 살펴본 결과 나타난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 디자인에 나타난 비구축적 표현은 물질이 가지게 되는 형태적인 면에서 재료성에 대한 반형태적인 표현으로서 비물성을 나타내며 경량화와 부유성을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료의 온유적 표현은 물질이 표현하는 이미지라는 측면

표 7 현대건축 : 매체적 측면

동경 롯본기힐즈 SHOP	동경 롯본기힐즈 아레나
샵내 매장 인테리어의 단순성에서 새로운 도구와 재료로 조형성을 가미해 정적 영역을 동적 영역으로 매체 활용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경 오다이바거리	동경 롯본기 Metro Hat
한 가지 구조적 재료에 여러 가지 상징적 조형물을 덧씌워 기존 건물이 갖는 상징성을 부가적으로 다양성을 나타낸 비물질적 표현 경향을 보여준다.	
동경 롯본기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동경 롯본기 헐리우드 뷰티 플라자
직선 계단구조를 곡선과 굴곡 처리 및 장식을 겸해 마감함으로써 매체적 다양성과 새로운 가능성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에서의 재료성에 대한 탈이미지적 표현으로 비물성을 나타내며 관찰자에게 허구의 이미지를 주게 되는 시각적 허구성과 재료의 혼용을 통해 일반적인 물성이 나타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보이게 하는 혼성화라는 측면으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매체적 표현은 재료성의 의미와 경향영역의 확장이란 측면에 관찰자에게 정보의 상호작용을 행함으로서 물질감을 해소시키게 된다. 이는 일반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로서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정적인 텍스트와 동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재료성에 대한 의미와 영역의 확장의 개념으로 텍스트와 스크린으로 나누어 비물질의 표현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7)

제3절 비물질표현의 영역유용성 분석

1. 비물질성의 확장성

국내 상업공간의 실내에서 비물질성 재료표현의 특성은 투명성을 위주로 한 미니멀리즘적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투명성을 통하여 실내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공간의 개방성을 증가시키며, 외부공간과의 확장적 연계를 통하여 내외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62] 상업공간의 투명성은 실내의 마감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되고 있는 메탈릭 네트, 투과소재의 패브릭, 매쉬, 다양한 투명도로 조절된 유리 등이 투명성의 주표현요소가 된다.[63] 또한 경량적 소재, 비일상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공간의 구축적 성질을 감소시키며 부피감을 탈피하려는 시도도 보여진다. 투명성에 있어서도 그 투명도에 다양한 레벨을 두면서 겹치고 혼재시키는 기법이 자주 구사되는데 이는 공간적 특성인 경계의 모호함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빛을 이용한 확장된 전면의 구성 및 기하학적 원형을 통한 상징성과 깊이감의 구현과 빛에 의한 무한 확장의 형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64](표 8)

---

62)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63) 배성윤, “기술매체 환경 변동에 의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연구”, 『홍산미원』 (1992).

표 8 상업공간에 표현된 비물질성 표현의 확장성

작품명/작품		표 현 특 징
요코하마 팬 퍼시픽 호텔 내 식당		다양한 레이어의 투명성, 메탈릭네트, 유리, 거울, 스틸을 사용하여 다양한 투명도와 일루전 연출
동경 롯본기 힐즈 뷰티 플라자		투과성 패브릭, 파티션, 문살, 톱니바퀴 등의 재료에 의한 투명도의 조절
동경 프라다 매장		성글기가 다른 매쉬, 투명한 수납고 등 투명도의 다양화
동경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반투명의 유리파티션, 동선제어 및 시각적 개방감 부여
동경 시부야역 PARCO 백화점		스기목 블록쌓기로 입면상의 요철을 이용, 이질적 재료로 인식되게 함
동경 시부야역 PARCO 백화점		자연석 덩어리, 닥지, 유리, 홀로그램 시트, 흑경 등 여러 재료를 합성하여 새로운 물성을 표현
동경 하라쥬큐 상가앞 전시물		전통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소재의 표현, 이질적인 주변재료와의 혼재로 인한 긴장감

64) 신문기, 『테크놀로지와 건축미학』 (서울 : 발언, 2004).

또한 투명하고 경량적인 재료는 반대로 폐쇄적이고 육중한 물성을 강조한 재료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 대비를 통하여 비물질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은유성 표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재료표현, 질감 등에 있어서 여러 재료를 혼재되게 사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기존 재료의 사용방법을 재해석하거나 변형시킴으로서 재료의 물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그 예들이다. 또한 기존의 상업공간 내부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의 사용으로 다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기법을 볼 수 있다.(표 9)

표 9 재료의 확장성

동경 마이시티	동경 긴자 로얄 파크 시오도메 타워
넓은 공간을 두개의 다른 재료의 형상적 이미지물을 배치함으로써 단순성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단순 로비에 장식성 보조 인테리어 재료를 결합시킴으로서 공간 사용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동경 롯본기힐즈 SHOP	동경 롯본기힐즈 SHOP
실내 인테리어에 상징적이며 추상성을 가하여 의문을 가지고 보게 함으로써 관심을 촉구시켜 추가되는 재료의 사용에 따른 확장성의 무한함을 볼 수 있다.	

Beechwood Banana Hanger	Fondue Set	4-Slice Toaster
단순 기물이나 조형에서 부가적인 기능의 결합과 믹스를 통해 새로운 기능의 창출이나 부여로 재료 이용의 확장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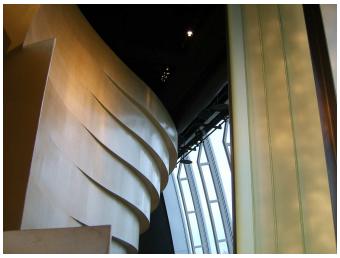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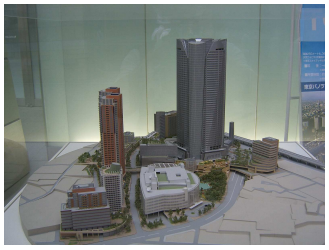
2. 비물질성의 복합성

공간개념에 있어서 비물질성의 국내 경향은 전반적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거나 경계면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착시의 효과로 나타난다. 국내 상업공간에 있어서 탈중력성의 표현은 공간 내에서 전체적인 요소로 표현되기보다는 경량적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여 매스감을 해소하거나, 재료와 빛을 통한 부유감의 표현, 상하의 무게감을 역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기하학적 구성원리에서 벗어난 유기적이고 비유클리드적인 실내구성요소를 통하여 탈중력성을 표현하는 방법, 투명하고 경량인 바닥재료 아래 부분에서 빛을 투사하여 공간이 부유하도록 느껴지게 하는 방법, 벽과 바닥, 천장의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간의 벡터를 조정하는 기법 등이 주로 나타난다.

국내 상업공간 실내에서 나타난 경계의 모호함은 투명 또는 반투과의 재료를 통하여 공간의 구획을 흐리게 하고, 빛의 투과를 통해 내부와 외부, 내부와 내부의 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이 주로 나타난다. 벽체와 바닥, 천장 간의 투과와 반사를 통하여 공간구획을 흐리게 하며 경계의 구축적 성질을 감소시키는 기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실내건축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방식에 있어 단일 요소의 접합과 축조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는 즉 다양화되는 현대사회특성을 반영하여 평면적인 기준에 개체들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개체들이 중간에 거치는 영역없이 직접 대면하도록 하여 다양화의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의 동일한 단위 개체들의 획일화 된 건물의 단위 유니트들의 조합을 다르게 함으로써 각각의 개체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료가 가지는 표현성에 있어서 한 재료가 두 가지 물성, 두 가지 구축적 성질을 갖도록 도와주는 평면화 된 지각상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비물질적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재료가 다른 구축 요소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착시적이며 변화적이고, 경량성과 통합성, 투명성 및 반사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각 재료간의 접합이나 축조 방식을 달리함으로서 비물질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표 10)

표 10 재료의 복합성

동경 긴자 시오도메 시티센터 41층	동경 긴자 크리스찬 디올
단순 입구 로비의 개방 공간을 창호와 이미지 재료의 덧씌움으로 단순성을 복잡한 구조로 시각적 이미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단순 기둥에 조형적 재료의 덧씌움으로 시각화와 부가적인 매달림 등을 설치하여 빛이 주는 밝음, 희망, 새로움을 재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동경 롯본기 힐즈모형	동경 롯본기 힐즈모형
기존 밀집공간에 제한된 건물 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시키고자 높고 낮음의 차이와 재료의 차별적 사용을 통해 새로운 복합성을 보여준다.	

3. 비물질성의 상호작용성

현재의 공간디자인은 진보된 기술로 인하여 다양한 표현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축에 있어서의 매체적 특성은 정보 기능을 하는 건축물의 표피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실내공간에 있어서 매체적 특성은 '고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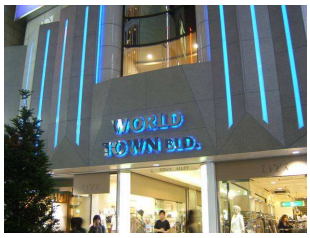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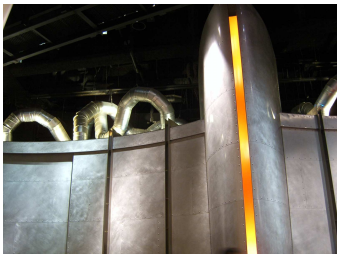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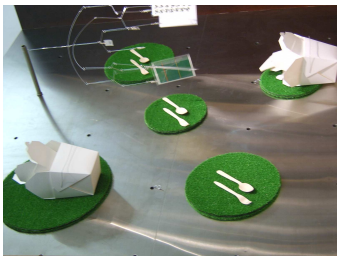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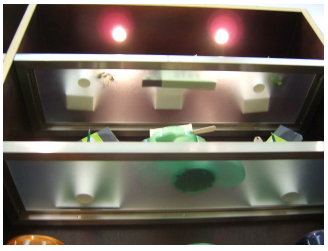
주변환경 또는 인간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이며 이는 일시성, 상호작용성이라는 용어로 요약이 가능하다.

실내 상업공간에 나타난 매체적 특성 중 일시성의 표현은 프로젝터와 영상, 조명기술 등의 사용으로 움직이는 그래픽과 사용하는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공간표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실내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빛과 조명을 통한 유동적인 실상 이미지의 생성으로 표현되었다.

상호작용성의 표현은 일시성의 특성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반사성, 투과성의 재료를 통하여 공간 내 인간의 움직임과 찰나성을 가진 매체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 또는 인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비물질성 재료의 사용은 표현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 주는데 이들 확장성과 복합성, 탈물질성의 상호 융합을 통해 표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비물질성 재료 표현의 공통적 특성에 따른 효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11)

표 11 재료의 상호작용성

	
동경 긴자 카레타 시오도메	동경 긴자의 거리
벽체 마감재 이외에 장식용 마감 재료를 구획된 재료로 구획을 줌으로써 단순성에 상징적인 상승 상호작용을 갖게 한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실내 공간 마감을 고정된 틀 속에 유동적 의미를 부여하고 디자인 시각에서의 장식의 조형성과 조명을 응용하여 공간 사용의 이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동경 진구메네 다케시타
단순 기물에 장치 장식을 덧씌움으로 시각, 미각, 기능적 관점에서 새로운 조형성과 청결한 아미지 등의 상호 새로운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특성 및 효과

제1절 분석결과 특성 및 시사점

재료는 1차적으로 인간의 지각체계를 통해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인간의 경험을 포함한 인지체계를 통해 나타난다. 이 경우 재료의 의미는 인간의 복잡한 사유체계를 거쳐서 형성되므로 은유적 의미와 표현이 중요시된다.

재료가 주는 감흥은 개개인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경험 등의 인지체계와도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 공동체 사이에도 서로 다른 상징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재료의 표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각 문화권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며, 우리가 건축 재료를 시각적으로 볼 때 느끼는 것은 그 재료에 대한 시각적인 지각과 함께 학습된 경험이 함께 인지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65]

따라서 이와 같이 재료의 표현에 있어 재료의 이미지[66]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봄으로서 재료가 인간의 지각·인지체계에 미치는 보편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현대실내건축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성 재료를 활용한 표현요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색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기타 디자인의 요소들이 이 색채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심리적 혹은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간에 가장 주된 색채는 바닥, 벽, 천장의 각 면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색채이다. 이들 색채는 단위 공간 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다른 실내공간과도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 12>에서 보여지는 재료, 경계, 매체적 사진은 주변 공간과의 융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65) 김소희, 윤도근, “건축마감 재료가 주는 긴장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 no.10 (2002), p.141.

66) 이미지(image)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 그 자체, 두 번째는 그러한 상이 개인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그려지거나 인식되는 상으로 설명된다.

특히 질감에는 구조적 재질을 알 수 있는 촉각적 질감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을 알 수 있는 데 시각적 질감으로 재료의 사용에 뚜렷한 분류가 없는 비물질적 표현은 <표 13>에서와 같이 매장 Shop 인테리어에서의 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금속은 금속대로의 질감이 있고, 차갑고 무겁고 견고하며 단단하다. 그러나 동은 값어치로는 은이나 금을 따를 수는 없지만 구리빛에서 나오는 느낌은 자연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67]

또한 질감을 고려한 재료의 선택시 중요한 것은 빛의 반사 혹은 흡수라고 할 수 있는데 <표 14>에서 보여지듯이 매끄러운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반사율을 이용, 유리나 금속을 응용한 거울면과 같은 성질을 띠어 하나의 결체로서 경계적 모호성을 비물질성 재료를 통해 살려준다. 한편,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표 15>에서와 같이 매체적 형상을 주위 재료와의 조화로 안정감과 균형으로 안정된 느낌을 보충해 준다.

표 12 비물질적 표현 특성

분류	비물질적 표현 특성	대표적 작품	사진
재료적 요인	· 재료적 즉물관에 대한 극단적 추구로 투명성, 은유화로 천정 공간의 확장성과 형태의 복합성 및 기능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Dominique Perrault -SAGEP -Hotel-industrial JB	
경계적 요인	· 물질의 분해를 통한 중심과 중력의 이탈과 반중력, 경량화로 확장, 복합, 상호작용을 단순한 형태의 건축적 요소임에도 잘 표현되고 있다.	Goop Himmelblau -Funder Factory Bermard Tschumi -Le Fresnoy	
매체적 요인	· 상호작용성(interactive)의 내·외부 물질감을 가지지 않게 의미적 확장과 초표피, 스크린의 타원형에서 보여지는 복합성과 기존 건물과의 융화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Marcos Novak Toyo -Egg of wind	

67) 윤평섭, 『환경미학』 (서울 : 문운당, 1999), p.95.

표 13 재료적 표현 특성별 분석

<table>
<tr><td rowspan="2">재료적
표현</td><td>시각적
허구성</td><td>· 재료 특유의 물성을 가지나 다른 재료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이미지를 표현함</td><td rowspan="2">재료성(materiality)에 대한
탈이미지적 표현</td></tr>
<tr><td>혼성화</td><td>·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에 의한 새로운 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료를 혼용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함</td></tr>
<tr><td rowspan="2">동경긴자 De Beers shop 전경</td><td colspan="3"> </td></tr>
<tr><td colspan="3">
</td></tr>
<tr><td>특징</td><td colspan="3">재료의 사용에 있어 물질혼합으로 중력적 이탈을 탈구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동일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재료를 연상하게 시각적 허구성을 나타냄으로서 다른 이미지를 확장과 복합성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는 새로운 전달을 위한 의도적 혼용 작품으로 새로운 이미지 표현에 잘 부합된 상호작용의 특징을 갖는다.</td></tr>
</table>

표 14 경계적 표현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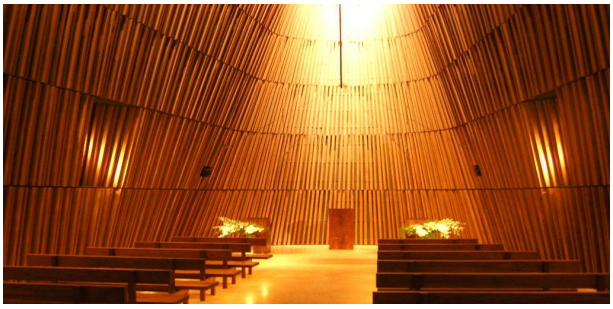
유형	요소	표현요소의 특징	
경계적 표현	경량성	· 건축에서의 경량화는 형태적인 부피감의 탈피이며, 폐쇄적 구조적 해체를 통해 표현되어짐 · 가벼움을 통해 구축성이 가지는 한계에 유동성을 부여함	재료성(materiality)에 대한 반형태적 표현
	부유성	· 건물이라는 구체적 결과물을 부력구조물의 모습으로 처리함으로서 자신의 재료관을 역시 반형태적 경향을 통해 표현함 · 구축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부유하는 건축의 이미지를 타나냄	
동경 롯본기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특징		건물내 경량성을 갖는 기존재료의 구조적 해체를 통해 가벼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구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확장사용과 유동성을 부여하고 반형태적 표현과 부력구조물은 이미지 시각화시킴으로써 경계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시켜 복합화를 꾀하였다. 또한 빛의 투영을 통해 하늘과 땅의 분별 모호와 작은 공간의 개봉을 통해 투사되는 빛으로 경계적 표현이 모호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부유성과 반구조역학적 형태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갖게 한 점이 돋보인다.	

표 15 매체적 표현 특성별 분석

매체적 표현	텍스트	· 텍스트이미지는 재료의 물성에 녹아서 재료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	재료성(materiality)에 대한 의미와 영역의 확장
	스크린	· 정보의 상호전달(interactive)을 물질감으로 해소하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의 가능성을 암시함 · 스크린을 이용하여 유동적인 정보를 전달	
동경 롯본기힐즈 아레나			
동경 시부야역 PARCO 백화점			
특징		본 작품속의 반형태적 경량화와 부유성을 통해 기존 이미지와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매체적 표현의 확장 사용과 복합적 재료의 사용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고 이러한 응용은 기존의 재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시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재료의 혼용으로 영역표현의 다양성과 소재결합의 무한성을 보여주어 상호작용을 높여 주었다.	

이상의 비물질적 표현재료를 바탕으로 비구축적 물질의 재료적, 경계적, 매체적 표현 과정에서 실내매장 건축디자인의 이상적 구상을 접목한 사례는 갈수록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제2절 비물질적 표현특성별 효과

현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은 주로 비선형성으로 상징될 수 있다. 비선형성은 미디어 벽체에 표현된 표면의 하이퍼미디어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표 16>에서와 같이 제한된 공간의 확장성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표현하는 환경을 생성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복합성의 <표 17>에서와 같이 갇힌 모습의 꼴로 상징성과 비선형성은 처음과 끝이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형하는 역동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표 18>에서와 같이 인간의 움직임을 정보로 간주하고 디지털매체는 이 정보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하는데 이는 비선형적인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도 있으며,[68] 전자 미디어를 통해 연결되고 확장될 수도 있듯이 구조물과 인근 건축물과의 상호작용속에 조화가 되도록 공간활용과 적용의 무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선형성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액질의 건축(Liquid architecture) 또는 가상건축에서 많이 논의되는 바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상호작용성에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즉, 현대의 상업공간 디자인에서 상호작용성은 건축공간과 사용자간에 정보교환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시각적 상징언어로 작용하는 시각적 오브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스크린이나 미디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움직임과 외부환경에 반응하고 유동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68) 윤평섭, 『환경미학』 (서울 : 문운당, 1999), p.95.

표 16 확장성 표현 특성에 따른 효과

표현특성		주요표현기법	공통된 표현효과
확장성	빛과 공간 예술	· 빛을 이용한 확장된 전면의 구성 및 사선도입에 의한 확장성의 강화 · 기하학적 원형을 통한 상징적 확장의 조형 · 보울트 천장에 빛을 투사하여 확장과 깊이감 구현 · 빛에 의한 무한 확장하는 벽면의 형성	벽과 천장에 투사 및 채광된 빛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일종의 방향감각을 부여하고,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확장성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깊이가 파악되지 않는 확장성은 신비감과 더불어 형이상학적인 체험을 유발한다.
	현대 건축 공간에의 적용	· 천창과 고측창을 이용한 수직방향으로의 확장감 유발 및 조형요소로서의 빛 도입 · 보울트 형태의 광천장을 통한 확장감 및 원초적 신비감의 형성 · 매스사이로 터져 나오는듯한 빛과 짙은 화산암의 대조는 내부공간의 응축된 확장성을 암시	
동경 롯본기 헐리우드 뷰티 플라자			
특징		제한된 공간을 보울트 천장 빛을 투사하여 공간사용의 확장감 및 원초적 신비감을 갖게 터져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방향성을 부여한 복합성 및 좁은 공간을 넓게 확장하여 공간활용을 이상적으로 깊이감 구현과 조형요소의 동시성을 표현하여 상호작용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표 17 복합성 표현특성에 따른 효과

<table>
<tr><td rowspan="2">복합성</td><td>빛과 공간 예술</td><td>· 형광등을 이용한 빛-오브제의 형성 및 모서리의 부분적 해체
· 반사, 투광, 재반사 등의 복잡한 시선왜곡을 통한 비일상적 공간의 형성
· 투명 아크릴 기둥을 이용한 상징적 경계의 형성
· 단순한 장치를 통한 일상적 경계의 해체와 다층화된 공간구조의 표현
· 접한 벽을 이용한 애매한 경계의 설정 및 이원적 공간구조의 복합화 형성
· 빛을 이용한 겹친 공간의 형성</td><td rowspan="2">‘빛과 공간예술’에서 빛은 다른 재료 혹은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공간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다. 이런 새로운 공간관계는 인간체험을 중시하기에 상대적이며 복합적인 공간관계 즉, 모서리 해체, 반사, 겹침, 다층적 경계, 내외부의 간섭 등의 표현효과로서 나타나며 이는 현대건축공간에서도 공유되고 있다.</td></tr>
<tr><td>현대 건축 공간에의 적용</td><td>· 빛, 기둥, 천장을 이용한 미묘한 복합공간의 형성
· 벽, 문, 창문이 색광에 의해 혼재되며 유동하는 공간의 형성
· 빛을 이용한 투시도적 방향성의 강화와 겹친 공간의 형성
· 모서리 분절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복합화 표현</td></tr>
<tr><td>동경 롯본기 헐리우드 뷰티플라자</td><td colspan="3"> </td></tr>
<tr><td>동경 시부야역 PARCO 백화점</td><td colspan="3"> </td></tr>
<tr><td>특징</td><td colspan="3">실내디자인 Shop 인테리어에 투명 아크릴 등을 이용한 재료의 확장 사용으로 상징적 경계의 형성과 단순 재료이지만 복합 활용으로 경계해체 및 다층화된 공간구조의 매체적 특징을 부각시켜 상호 상승작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료의 반사, 겹침, 벽, 문, 창문, 색상의 혼재로 모서리 분절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복합화로 공간활용의 다양성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td></tr>
</table>

표 18 상호작용 표현특성에 따른 효과

<table>
<tr><td rowspan="2">상호
작용</td><td>빛과 공간
예술</td><td>· 판유리와 거울을 혼용하여 투사와 반사를 유도하며 재료자체는 탈물질화함
· 반투명한 천이 빛과 결합하며 희뿌연 탈물질적 경계를 형성
· 강력한 색광이 건축요소에 스며들며 탈물질화함</td><td rowspan="2">다른 요소와의 결합력이 강한 빛은 새로운 광원,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게 탈물질적 공간을 형성한다. 탈물질화된 빛은 비일상적 시각체험을 제공하며 유희와 자극, 의외성을 통해 환상적 공간을 보여준다.</td></tr>
<tr><td>현대 건축
공간에의
적용</td><td>· 네온, 거울, 유리블럭 등이 상호 결합하여 통로는 탈물질화된 유희적 공간으로 변함
· 빛과 그물망이 상호 간섭하며 예기치 못한 패턴을 형성함
· 반투명유리와 검은 대리석의 대조와 반사를 통한 비일상성 형성
· 다양한 색광조명은 객실을 탈물질화된 욕망공간으로 만들며 그 패턴은 환상적 외관을 형성함
· 조명에 반투과되는 아크릴 스크린은 은유적 상징과 더불어 건물전체를 하나의 탈물질적 오브제화함</td></tr>
<tr><td colspan="2">동경 롯본기 힐즈
아레나</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동경
프라다 매장</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특징</td><td colspan="2">기존 구조물 재료에 부과된 탈물질된 경량적 재료를 부가시켜 결합함으로서 강력한 건축요소의 확장 사용에 따른 웅장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료의 상호 결합으로 네온, 거울, 유리블럭, 벽체와의 결합 등 경계적 복합 활용을 통해 시각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유희와 자극의외성을 통해 환상 매체적 상호작용으로서 디자인의 무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td></tr>
</table>

제5장 결론

이상의 비물질적 특성이 갖는 현대 실내건축디자인 관점에서의 표현된 특징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으로 제한된 경계 즉, 시간과 공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한 테크놀로지에 의한 구축적 탈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은 이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정적인 것에서 비고정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탈물질적인 것으로, 육중한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명확한 것에서 모호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는 형태적인 부피감의 탈피이며 폐쇄적 구조적 해체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특성과 함께 투명한 재료를 통해 풍부한 빛과 색채, 내부 형태에 의한 공간의 유동, 시각적 투명성에 의한 공간의 상호 침투에 따라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는 점에서 적극 권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투명성으로 인한 공간의 안팎은 표현요소로서 동적인 스크린 역할을 하여 정보의 상호전달(interactive)로 물질감을 해소하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형태와 이미지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물질화 경향은 고정된 물질성과 구축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정보와 유기체적 감응, 유동적인 변형, 이미지의 집적과 새로운 소통체계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근대적 '시각-공간'개념에서 '시간-정보-공감'개념으로의 전환을 매개할 것이다.

셋째, 비물질적 표현 유형에 있어 비구축적 표현, 재료의 은유적 표현, 매체적 표현으로 확장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표현 요소로는 경량성, 부유성, 혼성화, 시각적 허구성, 스크린, 텍스트 이미지에서 높게 나타나며 비구축적 표현은 유리나 금속재와 같은 반사면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실적 경량성을 토대로 한 시지각적 경험의 전달과 매스의 열림과 닫힘을 통한 상대적인 부유감의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구축적 표현의 실질적이며 건축적인 활용은 경량성은 클래딩이나 전창을 통해 경계를 가볍게 하거나 유리상자의 관입을 통해 매스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많이 행해

지고, 부유성은 상하층의 상반된 매스감을 통해 부유함을 표현하여 하부층의 입구와 형태구성을 통한 부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행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재료의 은유적 표현은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나타내는 혼성화와 재료의 중첩, 빛과 조명을 통해 물성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표현이 많음을 암시한다. 이는 재료의 은유적 표현의 실질적이며 건축적인 활용에선 시각적 허구성은 빛, 조명을 통해 질감과 재료의 성질을 감춤으로써 나타나고, 혼성화는 재료의 중첩과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이 잔다. 이것은 새로운 재료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결과로서 표현이 절제되고 환원적이면서도 고도로 의도된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표현특성과 세부요소들을 각각 하나의 개별적인 속성으로 규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각 특성과 요소간에 서로 중복되는 범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간 내에 나타나는 비물질성은 혼성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특성으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간 내에서 보다 지배적인 속성을 가진다.

현대의 디자인 전개양식은 실내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여러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물질성은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 현재의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의 디자인 패러다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비물질성은 표피, 재료, 미디어, 빛, 움직임 등의 요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실내공간에의 새로운 이미지와 형태, 공간적 개념의 양상으로서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는 국내 실내공간에서의 비물질성의 재료표현 특성 중 투명성은 미니멀리즘적 구성과 경량적 소재, 다양한 투명도로 조절된 마감재의 사용, 투명도에 레벨을 두는 기법 등의 경향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비물질성의 공간개념적 특징에 있어서 탈중력성은 공간 내에서 전체적인 요소로 표현되기보다는 경량적 재료나 형태

를 사용하여 매스감을 해소하거나, 재료와 빛을 통한 부유감의 표현, 경계면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착시의 효과, 상하의 무게감을 역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경계의 모호함과 투과 또는 반투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재료 간의 레이어링(laying)을 통한 공간구획 흐리기, 천장벽 바닥 간의 투과와 반사, 경계의 구축적 성질을 감소 등의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실내공간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변화 모색과 접근이 가능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업공간에 있어서 비물질성의 매체적 특성은 비고정적 이미지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일시성은 프로젝터와 영상, 조명기술 등의 사용으로 움직이는 그래픽과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공간표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향,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빛과 조명을 통하여 유동적인 실내 이미지의 생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은 인간의 움직임을 찰라성을 가진 매체로 표현하고 사용하는 경향,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반영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조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시대의 관심 대상인 비물질적 표현특성에 대해 다루었으나, 재료가 유도하는 외형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다루는 한계를 가졌으며, 향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건축디자인에서의 비물질화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 국제출판사, 2001.

길성호. “패러다임에 의한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김낙중. “루이스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김남헌. “빛에 의한 건축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0.

김성남.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미디어센터 계획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김소희, 윤도근. “건축마감 재료가 주는 긴장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 no.10 (2002), p.141.

김원갑. 『건축과 해체』. 서울 : 세계사, 2000. p.68.

김정재 외 1명.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no.3 (2002).

김혜자. “탈경계건축 : 도요 이또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연구회』, no.36 (2003), pp.33-42.

김희춘. “건축 역사와 그 소재.” 『월간 건축과 자재』(1989.6), p.44.

라도삼. 『비트의 운명, 네트의 사회』. 서울 : 케뮤니케이션북, 1999.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서울 : 미진사, 1995.

박길룡. 『건축의 재료 조형』. 서울 : PLUS 2001.

박종백.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 재료의 질감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4.

박혜원, 김정재.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no.3 (2002), p.92.

_____.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북대학교, 2002.
박홍. 『실내디자인론』. 서울 : 기문당, 1993.
배성윤. “기술매체 환경 변동에 의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연구.” 『홍산미원』 (1999), p.11.
서용민. “건축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표현특성 및 발현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성도재.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본 현대 건축의 외피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3.
송은아. “정보화 시대의 공간 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1.
신문기. 『테크놀로지와 건축미학』. 서울 : 발언, 2004.
유진상. “헤르조그 & 드 뫼롱 건축의 외피구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윤평섭. 『환경미학』. 서울 : 문운당, 1999.
이관희, 윤도근. “근대 건축이후 나타난 벽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1995), p.237.
이재규.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1.
이호진. 『건축표현사고』. 서울 : PLUS 2001.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 서울 : 시공사, 1999.
정진오. “패러다임에 의한 한국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8.
주은주. 『시각과 현대상』. 서울 : 한나래, 2003.
한영경. “바람을 향한 갈망 : 덧없음의 미학과 가벼움의 건축에 대하여.” 『이상건축』, 7 (1999), pp.128-129.
한우석. “국내 레스토랑 실내마감재의 사용현황과 색채표현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허구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비물질화 경향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1998.

외국문헌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New York : The MIT Press, 1996.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h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pp.42-43.

Christian, Thomsen W. *Mediaarchitecture-Part I : efining Positions*. a+u, 1995.

Jean, Lenchro P. 『랑크로의 색채 디자인』. 김기환 역. 서울 : 도서출판 국제, 1994.

Jean, Prouve. *Paffy George*. New York : Chronicle Book, 2001.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 1 1910-29, Les 'editions d'architecture*. Zurich, 1964.

Robert, Atkins.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석 역. 서울 : 시공사, 1994.

Thomas, Kuhn S.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서울 : 까치, 1999.

Wucius, Wong. 『디자인과 형태론』. 최길영 역. 서울 : 도서출판 국제, 1994.

국 문 초 록

현대실내건축의 비물질성 표현에 관한 연구

김 수 현
지도교수 : 윤 갑 근
조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비물질의 일반적인 개념과 (실내매장 인테리어에서의) 실내공간에서 비물질화의 전개를 토대로 하여 비물질성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며, 현장도입에 대한 방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유용성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물질화의 개념과 디자인에서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흐름을 알아보고, 둘째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대 디자인에서의 비물질성 유형과 표현특성을 분류해 보는 문헌고찰방법과 이를 토대로 국내사례에 접근되어진 분석을 통해 비물질적 표현 경향의 실질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사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이상의 비물질적 특성이 갖는 현대 실내건축디자인 관점에서의 표현된 특징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으로 제한된 경계 즉, 시간과 공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한 테크놀로지에 의한 구축적 탈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은 이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정적인 것에서 비고정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탈물질적인 것으로, 육중한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명확한 것에서 모호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투명성으로 인한 공간의 안팎은 표현요소로서 동적인 스크린 역할을 하여 정

보의 상호전달(interactive)로 물질감을 해소하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셋째, 비물질적 표현 유형에 있어 비구축적 표현, 재료의 은유적 표현, 매체적 표현으로 확장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표현 요소로는 경량성, 부유성, 혼성화, 시각적 허구성, 스크린, 텍스트 이미지에서 높게 나타나며 비구축적 표현은 유리나 금속재와 같은 반사면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실적 경량성을 토대로 한 시지각적 경험의 전달과 매스의 열림과 닫힘을 통한 상대적인 부유감의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재료의 은유적 표현은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나타내는 혼성화와 재료의 중첩, 빛과 조명을 통해 물성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표현이 많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새로운 재료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결과로서 표현이 절제되고 환원적이면서도 고도로 의도된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표현특성과 세부요소들을 각각 하나의 개별적인 속성으로 규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각 특성과 요소간에 서로 중복되는 범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간 내에 나타나는 비물질성은 혼성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특성으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간 내에서 보다 지배적인 속성을 가진다.

현대의 디자인 전개양식은 실내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여러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물질성은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 현재의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의 디자인 패러다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비물질성은 표피, 재료, 미디어, 빛, 움직임 등의 요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실내공간에의 새로운 이미지와 형태, 공간적 개념의 양상으로서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